

『2020 취업 우수 사례집』은 2020학년도 세종경력개발센터가 진행한 취업지원 수기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취업수기를 편집하여 엮은 책입니다.

먼저 취업 준비 및 사회에 진출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선배들의 취업 성공/실패 경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취업준비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발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최대한 해치지 않기 위하여 교정 및 편집을 최소화 하였기에 문법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취업지식기부에 동의한 졸업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세종경력개발센터

최우수상

학과	기업명	직무명	페이지
약학과	대웅제약	개발	2
전자및정보공학과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12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삼성전자	공정기술	17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클라랑스코리아	마케팅	21
공공행정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행정(경영사무)	26

우수상

학과	기업명	직무명	페이지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SK C&C	HRD	31
영어영문학과	가스기술공사	일반직	35
국어국문학과	고용노동부	일반행정	39
제어계측공학과	대우조선해양	생산관리	48
국제스포츠학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전국체전지원	53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삼성전자	회로설계	57
공공행정학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행정	60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코레일	사무영업	70
정부행정학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조사직	75
경영학부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79

장려상

학과	기업명	직무명	페이지
전자및정보공학과	ASML	Field Service Engineer	83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BGF리테일	영업관리	85
경제학과	IT조선	취재기자	88
전자및정보공학과	KLA	Customer Support Engineer	92
경영학부	고려대학교	e-learning 지원	95
공공행정학부	빅솔	기획, 영업	98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삼성전자	생산관리	102
전자및정보공학과	삼성전자	공정설계	105
전자및정보공학과	삼성전자	공정설계	108
제어계측공학과	삼성전자	공정설계	111
전자및정보공학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계	114
전자및정보공학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공정설계	117
공공행정학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일반행정	120
신소재화학과의	엠코테크놀로지스 코리아	Assembly Engineer	124
국제스포츠학부	카카오VX / 코오롱 FnC	골프 아카데미 / 골프사업부 마케팅팀	127
식품생명공학과	코스맥스바이오	제품개발	130
북한학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여신심사 보조	133
영어영문학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 및 사업보조	136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휴맥스 오토모티브	HW sound tuning	139



최우수상

1. 유형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턴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대웅제약	직무	개발

3. 합격자원			
전공	약학과	다전공 이수	-
합격시 평균학점	3.74/ 4.5점	합격시 연령	26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930	회화점수(토스,오픽)	-
인턴경험	①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연구실 학부연구생 ②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약제학 연구실 학부연구생 ③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전임상학 연구실 학부연구생		
대외활동	①KNAPS(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Students) ②APPS(Asia-Pacific Pharmaceutical Symposium) ③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지킴이		
동아리	①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봉사동아리 KU PHARM ②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봉사동아리 고고팜 ③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수상경험	2020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최우수상 ①식품의약품안전청 약대생교육프로그램 ②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의약품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움 고혈압 치료 의약품 이상사례와 안전사용) ③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④Global Bio Conference (국제의약품어 MedDRA 교육 워크숍 MedDRA 용어 및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잡코리아, 사람인, 잡플래닛, Sportal, 세종경력개발센터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독, 애브비, 대웅제약
서류	합격 기업명	대웅제약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대웅제약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는 대웅제약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성 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이며 3차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나 이렇게 인성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저의 준비전략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취업 지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준비 과정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며 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졌던 저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은 취업을 앞둔 취준생 뿐만 아니라 신입생부터 2학년, 3학년까지 다양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저의 1학년때 부터의 학교생활과 마음가짐, 그리고 대웅제약 인턴 중간 인성 면접 합격까지의 자세한 스토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 전략 STEP①] - 학년별 준비방법

-1학년 :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꾸준히 자기 계발하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고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구체적인 진로를 염두해 두고 특정 분야에 관련된 활동만 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1학년 내내 부과대를 맡아 학우들을 위해 앞장서서 학교생활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축구와 농구 소모임에 들어가 매주 운동을 하며 체력적인 부분도 관리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여 격주로 봉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양로원 등에서 약사님들과 동행하여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전공과 지식을 활용한 봉사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에서 취재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재부는 기본적으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약사로서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현직의 업무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변리사 선배님들도 계셨고, 금융권이나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계로 나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약사의 진로로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흔치 않은 약사의 진로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시야가 넓어졌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학년 첫 여름 방학에는 특히 공직약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약대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약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알아보았고 2일 동안 교육을 들

으며 '공직 약사'라는 진로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춤 동아리에 가입하여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지만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춤을 춰본적도, 배운적도 없었지만 취미 활동으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비록 잘 추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팀원들과 함께 전체 약학대학생 축제에서 공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약학대학과 연합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1학년 때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학점은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 3.5는 넘자' 라는 저만의 기준을 세웠고 1학년 때부터 매 학기 3.5 이상의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학점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학점 관리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자기관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학년 : 다양한 교외 활동, 심포지움, 해외 활동들을 통해 시야를 넓히기

1학년 때까지는 교내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동기들과 친목을 다졌다면 2학년 때는 다양한 교외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시작했던 축구, 봉사, 교지편집부, 춤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은 꾸준히 이어서 했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는 지속해야 해당 활동들을 통해 배우는 점이 있고 부족한 역량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KNAPS 단체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KNAPS(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Students)는 한국약학대학생 연합으로서 전국의 약학대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 비정부 단체입니다. KNAPS에서 교육학술국원으로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주제들로 의약품 바로알기 캠페인을 기획하여 시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사용법들을 제공했습니다, National Congress, 복약상담대회 등을 기획하여 약대생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고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약학심포지움(APPS)에 참여하여 해외 약학대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No Smoking, Exercise, Healthy Habits, Healthy Foods 총 4가지 주제로 Public Health Campaign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항노화, 화장품 등 다양한 주제의 workshop에 해외 약학 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며 글로벌 소양을 키워왔고 의약품 외 코스메틱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외 및 글로벌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외자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추후 대응제약의 개발팀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한 줄의 스펙이 되고 자기소개서에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었습니다.

1학년 부과대 경험에 이어 2학년에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제10대 학생회 기획국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꾸준히 키워나갔습니다. 교내/외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며 교수님들과도 자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교외 다른 약학대학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하여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시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2학년때는 교외 다양한 심포지움을 찾아 참석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의약품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고혈압 치료 의약품 이상사례와 안전사용에 관련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metformin과 병용한 SGLT2 inhibitor와 DPP4 inhibitor 효능 비교, 신장이식 환자에서 PPI의 복용기간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국내 심포지움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연사가 초빙되어 강연하는 Global Bio Conference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백신 항체치료제 유

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과 규제 현황 파악, 국제의약용어 MedDRA 교육 워크숍 MedDRA 용어 및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등 교외 다양한 심포지움과 워크샵에 꾸준히 참여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시야를 확장시키나갔고 관심있는 분야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가기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추후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 다양한 Lab 경험,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스펙도 쌓고 구체적인 진로를 생각해보기.

1학년, 2학년 동안 해온 많은 활동들을 통해 얻은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조금씩 진로에 대한 폭을 좁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한 선택지는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연구약사에 대한 진로가 궁금했습니다. 약학대학 내에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lab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궁금하여 여러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 인턴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배우고 싶었고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맞이한 겨울방학에는 임상약리학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중에는 약제학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지원하였고, 학기중에 약제학 랩실을 신청한 첫 지원자였습니다. 또한 전임상학 연구실에서는 원래 학부생을 받으시지 않으나, 적극적인 모습에 받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보통 학부생때 연구실을 하는 동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배우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중에도 지원하여 세 군데 랩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랩실을 경험한 결과,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글로 공부하는 것에서 실제 환자 사례들이나 임상결과들에 대한 논문을 읽고, 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실험을 직접 해보고, 프로젝트를 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상까지 타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자 했던 랩실 경험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원 직무 관련 경험에 써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랩실 경험을 하며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도 지원서에 함께 써넣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펙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랩실 경험을 통해 다양한 논문들을 읽어왔다는 것이 이번 대응제약의 개발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발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가, 제품군을 비교하고 시장성을 조사하여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후보군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 때 레퍼런스로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이미 저는 다양한 랩실 경험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십 페이지의 논문을 번역하고 요약하는 등의 경험들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며, 회사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을 하였던 것이 이번 서류전형 합격에서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전략 STEP②] - 지금까지 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지금까지는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고학년이 될수록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 시켜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나 학생회, 대외활동, 인턴쉽 프로그램, 연구실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구체화시키고 스스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뿐만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

는 데에도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왜 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하는지 직,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 서류단계가 통과해야 그 다음 인적성과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으며, 첫 관문인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큰 요소로 작용하므로 잘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 어떠셨나요?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1.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다양한 경험들을 시간별로 천천히 나열해보기

비록 본인이 한 활동들일지라도 기록해놓지 않으면 까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본인이 한 활동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들을 할 때마다 시간별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단지 속한 동아리 명칭이나 직책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아리나 집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활동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어 놓아야 합니다. 활동 기간 중에 특히나 의미 있고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은 스토리로 적어 놓아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Keyword 만이라도 적어 놓는다면 나중에 다시금 떠올리기 쉽습니다.

2.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혹은 직무에 관련지을 만한 활동들을 추려 보기

이렇게 본인들이 한 활동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면, 여기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혹은 직무에 관련지을 만한 활동들을 추려봅니다. 본인이 한 모든 활동이 본인의 선택한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행동하여 선택한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만 꾸준히 해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이 바뀌며,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한 두가지만 선택지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들만 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껏 해온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분야 혹은 직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5가지 정도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차근차근 다시 들여다 보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3. 간추린 활동들을 가지고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맞게 배치하기.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적는 문항이 있다면, 본인이 해당 기업 혹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가장 적합한 활동을 골라서 배치를 합니다. 의미를 두고 했던 교내/외 활동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해당 기업 혹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선택하여 배치를 합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활동들로 간추리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추린 활동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4. 적재적소에 배치한 활동 및 경험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단순히 ~활동들을 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STAR기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상황과 본인의 노력,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말들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자랑하듯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언급하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독성이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글자수를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식어들을 덧붙이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고 읽는 사람은 숨이 차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반복해야 한다면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문장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등의 접속사로 계속 연결된다면 해당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목적을 갖고 작성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관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써야 하며, 사소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틀리게 쓴다면 이 또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작성하기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인재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인재상 등이 나와 일치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들과 느낀점을 작성할 때 은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면 주의깊게 보며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재상과 비전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꼼꼼히 찾아보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나 이슈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국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함보다는 추후 면접까지 고려하여 자세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본인만의 언어로 메모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아직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인성면접 까지 합격한 단계이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합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불합격하게 되었을 경우 그 이유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입니다. 제약회사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직무를 선택하느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원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웅제약 인턴을 지원할 때, 여러 지원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개발부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대웅제약 홈페이지와 최근 2개년 뉴스 등을 찾아보며 분석하였습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인재상이나 비전 등 회사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기 수월했으나 상대적으로 각 부서들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부서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타 제약회사의 직무들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대웅제약 개발팀의 업무를 파악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직무에 대한 명칭도 다르며,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갖은 노력을 통해 지원한 부서의 실제 업무,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평소에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 간접 경험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찾아보고 글로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우 멘토링을 통해 직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받지는 못하였고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도 교우 멘토링과 같이 현직에 종사하는 멘토님들을 만나는 다양한 취업 멘토링 프로

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여 제약회사의 직무를 완벽히 분석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턴 경험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제약회사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방학때마다 제약회사 인턴쉽프로그램에 여러차례 지원했으나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여 인턴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방학 인턴쉽 프로그램에 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회의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러한 작은 경험들 하나하나가 모여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웅제약 인턴에 지원을 하면서 회사 인턴 관련 경험을 작성하는 목록에 아무것도 쓸게 없다는 사실에 큰 회의감이 들었고 학부생때 작은 경험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방학때마다 성실히 회사 인턴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온 동기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학부생때 경험할 수 있는 회사 인턴쉽 프로그램에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기업에서 인턴을 모집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소에 제약회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의 제약회사를 정하여 기업 분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인재상이나 연혁, 자사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최근 5개년까지의 뉴스 기사들을 읽어가며 해당 기업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인턴쉽 프로그램 활동에 지원하여 실무경험을 쌓아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교내/외 동아리와 심포지움, 워크샵, 랩실 등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과 공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보니 회사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소지가 대웅제약의 개발팀 지원에 필수 요소나 우대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 본인이 훨씬 더 준비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컴퓨터활용능력과 토익이나 OPIC과 같은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하여 지원서에 업무 능력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교우 멘토링]

저는 제약회사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교내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던 중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우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고 되었고 2회 참여를 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이 진행하는 멘토링이다 보니 질문을 하기에 편안했고 설명도 더 자세히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직에 계시다 보니 해당 직무에서 실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인 역할들을 꾸밈 없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 멘토링을 진행하시는 멘토님들 중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없으셔서 조금 아쉬웠지만, 제약회사에서 주로 약사들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서는 제약회사의 영업과 마케팅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영업직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교우 멘토링의 멘토로 제약회사의 영업직에 계신 분을 선택하였습니다. 평소에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가 비슷한 직

무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하는 일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부서는 지역을 맡아 판매를 하는 반면, 마케팅 부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을 통틀어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주로 영업직에서 경험을 쌓아 마케팅 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자계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사보다 마케팅직으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분들은 주로 학술팀으로 입사하여 주로 논문 서칭 및 번역을 통해 마케팅과 영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직과 같은 연봉을 받지만 자격증 fee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사실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속한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전해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약사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우 멘토링에서는 평소에 제약 공장에서는 약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궁금증이 있었기에 제약공장에서 DP(Drug Product)팀에 계신 멘토님을 선택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DP 팀에서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만들어 해외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수출을 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업무는 크게 조제, 충전, 포장 단계로 나뉩니다. 원료의약품을 버퍼 등으로 잘 희석하는 것을 조제라고 하며, 약을 주사기에 넣는 과정을 충전이라고 합니다. 약을 수출하기 위해 배송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포장이라고 합니다. 각 단계의 생산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약을 만드는 장비를 문제가 없도록 다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멘토님께서 학부때 전공이 약학과는 아니셨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추가로 동료 또는 상사 중에 약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생산부서와 품질보증부서에는 약사가 최소 1명 이상씩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공장 내에서 약사들은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품질보증부서에서 약사들은 주로 제조 설비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을 만족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 및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들을 읽을 일이 많아서 영어를 잘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찾아보고 생각해왔던 마케팅직과 영업직, DP 부서에 대한 오해와 헷갈리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질문을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우 멘토링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취업준비는 졸업하고 나서 시작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교우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제약회사에 관심만 있었고 사내 여러 직무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우 멘토링을 통해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저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 자료나 사이트들을 공유해주셔서 제약회사에 지원을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입니다. 취업을 걱정하는 친구들 중 대다수는 이제껏 해온 것이 없어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일수록 걱정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학년 학생들은 취업에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입학한 지 얼마 되

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미 없이 노는 활동으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는 취업에 딱쳐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때 사실 취업에 큰 압박감도 없었고 관심도 크게 없었습니다. 머나먼 미래의 일과 같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만히 누워 늦잠을 자거나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 지금 당장 관심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나씩 수행해나갔습니다.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맛보며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해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가 선택하게 될 진로와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 스스로 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많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니 진로 또한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 봤을 때 지금까지 의미를 두고 했던 대부분의 활동들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활동들이 현재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왔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시작하세요. 그런 활동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후로 달라진 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며 적어도 고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위해 과거의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했다는 죄책감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1.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취미 활동을 만들어라!]

평소에 관심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취미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취미활동을 만드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상관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큰 상관이 있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접에서 '취미 활동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외로 취미활동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더라도 너무 흔하고 뻔한 답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너무 준비한 티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평소에 진심으로 즐기면서 하는 취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1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교내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동아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여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본인만의 취미활동은 단지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취업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해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인만의 취미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학점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학점은 중간고사 한번 잘 본다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취업을 할 때는 전체 학점 평균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전체학점 평균은 한 학기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학점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학점 평균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의 노력이 필요하고, 매 학기마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매 시험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에 학점을 써 넣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원자의 학부시절 성실도와 자기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점을 잘 관리해왔다면 졸업까지 꾸준

이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학점 관리를 잘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하여 학점의 상승곡선을 그려준다면 이 또한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라]

교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우선 다양한 학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는 곧 나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저 또한 1학년 때는 주로 교내 활동들만 했지만 2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시작하였고, 교내 활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인턴십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나가는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만 찾지 말고, 학교 밖으로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워크샵이나 심포지움 등에 참석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석하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시야도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물 밖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설레임과 열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 인턴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파운드리 사업부 / 공정설계 / PA1팀 / PI(Process Integration)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 및 정보공학과	다전공 이수	X
합격시 평균학점	4.05 / 4.5점	합격시 연령	27세
어학점수(토익,토플)	X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 IH
해외경험	2009.7~2010.6 :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공립 고등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음.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자동차운전(1종보통)		
인턴경험	2020년 하계 삼성전자 인턴 수료		
동아리	<p>전축(2015.03~2020.12) : 매주 축구경기를 통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인맥을 형성/ 매 학기 교내 축구대회 입상을 목표로 꾸준한 팀원들 끼리의 연습을 하였음.</p> <p>Ni3(2018.03~2018.12) : 인공지능, 딥러닝(Python)을 통해 Neuro image의 MRI를 학습하고 환자의 뇌 사진을 보고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하였음.</p> <p>고려대학교 호연학사 사생회(2019.03~2019.12) : 기숙사에 살면서 같이 사는 사생들을 대표하여 총장을 맡고, 학우들의 불편사항 혹은 건의사항을 조치하며 주기적인 행사를 통해 학우들과의 친목다짐을 위한 자리를 기획하였음.</p>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p>면접왕 이형 (자소서, 면접 활용) : https://www.youtube.com/channel/UCp-C7mtkuOw6q8E1Uc2NVpQ</p> <p>인싸담당자 feat. 자소서, 면접 (자소서, 면접 활용)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4lfcWF7NAP5TcMsyRXXQ</p> <p>위포트 (인적성 활용) : https://www.weport.co.kr/user/mypage/contents/online?filter=video</p>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면접	불합격 기업명	X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취업전략>

삼성전자는 매년 하계 인턴을 뽑습니다. 공고는 2월쯤 올라오고,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적성(GSAT)시험을 보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합니다. 하계 인턴은 취업 전환형 인턴이라서 인턴 과정을 잘 수료했을시에, 11월에 최종 전환 확정 면접을 보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턴의 지원조건은 다음해에 졸업예정자여야 (유예, 수료상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므로, 전국 대학교의 4학년들 끼리만의 경쟁입니다. 일반채용은 4학년, 졸업생, 수료생, 이직자 등 엄청 많은수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턴을 통해 취업을 하자는 전략을 새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년별 활동내용>

사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거 같습니다. 인적성을 잘하고, 면접을 잘 볼 자신이 있어도 학점이 좋지 않으면 서류에서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적성을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이어져온 꾸준한 학점관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소서를 많이 써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턴지원 시점은 4학년 2월이므로, 적어도 3학년 때 여러편의 자소서를 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합쳐서 최종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학년때 합격의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올라왔던 모든 자소서들을 써보고 저만의 자소서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가 붙고 인적성을 시작하면 매우 늦습니다. 인적성은 많은 문제풀이와 반복숙달이 필수적인데, 서류발표가 나고 인적성 시험이 있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겨울방학부터 미리미리 인적성 강의를 듣고 반복, 익숙해지는 훈련을 통해 남들보다 인적성 공부를 빨리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정보검색은 위에서 말한 사이트를 많이 활용했 습니다. 주로 친구들 끼리 공유도 많이 하고, 특히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잘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꼭꼭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질문>

1. 2020 삼성전자 하계 인턴

인턴 지원자라 인성면접만 진행했습니다

1분자기소개x

공정설계 분야를 어떻게 알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은 어디서 제공받았니?

존경하는 인물 왜?

집적회로 설계가 아닌 왜 공정설계?

축구했다 써있는데 리더경험?

회장하면서 어려웠던점?

회장하면서 의견이 안맞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했는지?

한국사 자격증 있던데 한전 관심있는지?

군대 최전방에서 했다고 써있는데 뭐했는지?

군대의 경험이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인공지능 학부연구생 했는데 공정설계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하는게 대세예요?

동영상 찍었다던데 영어로 간단하게 아무거나 해보세요.

마지막 하고싶은 말.

2. 2020 하반기 공채

(2020 하계 인턴으로 근무하여 면접이 미리받은 ppt를 작성하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식 gsat, CBT는 없었습니다

질문1. 거창한 계획말고 디테일하게 너가 지금 당장 공정설계, PA1팀, PI파트로 와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2. 동일 Fin에서 Top부분의 Width와 Bottom부분의 Width중 두꺼워졌을때 더 크리티컬한 부분은 어디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질문3. 신규 반도체 제작 process에서 공정설계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 (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저는 미리미리 먼저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적성 같은 경우 누가 얼마나 잘 푸는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이 푸는 연습과, 먼저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학년 겨울방학때부터 준비했던게 많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다들 서류 발표가 나고 인적성을 시작했는데, 저는 3학년 겨울방학때부터 인적성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조금더 빠르게 시작한 것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격 여하에 상관없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쓴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합격의 가능성이 없는 자기소개서가 올라왔을 경우 귀찮아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자기소개서도(물론 탈락했지만) 꼭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저장하고 가지고 있다가 삼성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점을 1학년때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류에서 안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적성을 겨울방학 때부터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점이 불안해서 어차피 떨어질 서류 인적성 해봐야 무엇하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저는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취업은 1학년때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길게 이어져 오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정신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과 공부도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검사해서 전문가분과 상담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 멘토링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에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했던 반도체의 가장 기본과목인 물리 전자공학을 처음 배우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기획 후 진행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본 물리 전자는 처음 수강했을 때 보다 반도체에 대한 훨씬 폭넓은 이해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의 기본기를 더욱더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심화 반도체 스터디에 참여해 8대 공정 중 Litho에서의 회절 이슈로 인한 OPC 현상을 Excel의 VBA로 제작 및 분석하고 FinFET, Nanowire FET, GAA, MBC-FET 등 차세대 소자에 대한 등장 배경과, 기술적 한계, Device physic 관점에서의 동작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후에 4차 산업 기반 시스템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 솔루션으로 평가받는 TSV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세미콘 코리아와 세덱스를 방문해 다양한 장비·부품들을 봤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질문하며 지식을 늘렸습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과 대화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영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전공 영어 회화능력을 기르기 위해 2학년부턴 매주 반도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영어로 설명하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해오고 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실력을 기반으로하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는게 정말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나 따위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어느 무엇도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자신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될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진심을 담아서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3학년 때부터 많은곳에 지원을 했고 많은 탈락을 했었습니다. 또한 면접도 두어번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면접경험이 큰 도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했던 인턴 면접에서는 위의 두어번의 면접경험으로 떨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부드럽게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말투나 행동, 표정, 목소리, 눈빛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고 멋있는 모습을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또한 박람회를 가는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도체 대전 (SEDEX)를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수업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우고, 보았던 잉곳, 웨이퍼, 반도체 장비들을 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작년 삼성부스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배경과, 한계, 또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업에서 집중해야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학생의 신분으로 있었던 만큼, 대학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을겁니다. 하지만 많은 반복과 학습을 통해 처음 접하는 일들에 대해 숙달을 하는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파운드리 시장은 5G, AI, 자율주행 등 응용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승자승 원칙이 강하게 지켜지는 시장인 만큼 기업들 간의 신뢰 역시 다음 수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도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엄청나지만,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오늘날의 선단공정을 가진 파운드리가 내일의 가장 효율적인 최선단 공정을 가지며 새로운 산업혁명에서도 주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세라믹 기술원/KIST/SK하이파이브(KLA)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직무	공정기술/양산기술/전자재료연구/ Customer Engineer
-----	--	----	--

3. 합격자원

전공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4.33/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25점	회화점수(토스,오픽)	토스 Lv6
인턴경험	학부 연구생(6개월)		
동아리	등마(학과 축구 소모임), 학과 내 교과목 멘토링(멘토/3년)		
수상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최우등생 7회, 성적 우수상 2회(총장상) - 국가 우수 장학생(이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OOC-Hi 활동 장려상, 강의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미래 반도체 공정 기술 엔지니어란 주제로 TFT 소자 개선 프로젝트 과정을 에세이로 작성) -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장려상(전공 공부 과정을 에세이로 작성) 		
외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Memory Academy -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이론 교육 - 직무 부트 캠프 반도체 수율 관련 교육(코멘토)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세종) 대학일자리센터,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 렛유인, 위포트, 해커스 잡, 잡코리아, 사람인, 자소서 닷컴 - 유튜브 채널: 봉봉TV, 비밀 언덕의 자소서 면접연구소, 면접왕 이형, 강민혁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LA, 기가포톤, AMK, 동부하이텍, 한국 세라믹 기술원, 원익IPS, 엠코테크놀러지, LG 이노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SK하이파이브(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 세라믹 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SK하이파이브(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파악과 인적성 공부를 중점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름방학부터 나의 학과와 관련된 기업을 탐색하였고, 이를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국가 연구소 4개로 분류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이후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경험을 상황/문제/내가 한 일/경쟁력으로 분해 후,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인턴 인적성 탈락을 교훈 삼아, 여름방학 시작부터 GSAT 수리/추리 기초강의를 들으며 문제집과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주최하는 인적성 강의/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취업동아리 반도체 팀에서 강사님, 8명의 재학생과 함께 PT 면접과 인성 면접에서 유의할 점등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활동내역으로는 1학년: 축구와 학술 소모임/ 2학년: 창업동아리, 학과 멘토링/ 3학년: 반도체 공정, 학부 연구생, 학과 멘토링, 교우 멘토링/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멘토링, 교우 멘토링, 취업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7학기 모두 최우등생과 2회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적성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4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SKCT 언어영역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점과 직무영역 시험을 준비할 수 없었던 점이 불합격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KCT는 문제집의 숫자도 적어 대비하기 어려울뿐더러 직무영역은 문제집과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와 실제 시험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문제를 풀었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시험이 진행되다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진 제 자신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서류 불합격 이유로는 영어 스피킹 점수 미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계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으며 크게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문제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영어로 본사와 대화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텐데 저는 회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업 서류 불합격 이유는 지원동기 작성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중견기업에는 지원동기를 소홀히 쓴 것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완계획으로는 OPic을 1월 전까지 준비하여 IH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것이 목표이며, 인·적성에서도 언어영역과 추리 영역을 집중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시 합격했던 자기소개서 내용도 수정 및 보완하여 더욱 강점이 두드러지는 서류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온·오프 취업동아리]

4학년 여름방학 기간부터 하반기 취업을 위한 취업 동아리 반도체 팀에 참여했습니다. S 전자 출신 엔지니어에서 인사팀까지 경험하신 강사님으로부터 반도체 기업을 준비하는 자세와 필요한 지식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가까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실제 기업 내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어떤 것인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주셔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며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멘토링]

4번의 교우 멘토링을 진행하며 ASML,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업의 선배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해온 스펙과 수상경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 등을 직접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복지, 연봉, 주거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직업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진로특강, 취업특강]

다양한 진로 및 취업특강을 통해 진로설정의 중요성과 진로탐색 방법 등을 제공받아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특강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 단점과 특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종합했을 때 어떤 직업, 직무와 잘 어울리는 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특강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였으며, 강사님들의 조언과 경험담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나현 선생님과 상담]

저는 2년간 선생님께서 정말 진로부터 취업까지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1학기 진로에 대해 고민이 컸던 저는 첫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취업 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었으며, 돈, 명예, 도전적인 일, 도심 근무지 등의 저의 답변을 종합하여 대기업이 어울릴 것이라고 선생님의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고민했었던 다양한 선배들의 이야기와 학과별 취업 이야기 또한 들려주셨었습니다. 이는 제게 너무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으며, 앞으로 나의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기업을 준비하며 다양한 면접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선배들까지 선생님 덕분에 참여하고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만의 강점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부연구생 그리고 협업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무와 관련된 경험과 배움을 더욱 키워 차별화 된 강점을 갖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꿈이 생겼습니다. 내 주변에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분들 덕분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받았던 도움만큼 나도 후배들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저보다 더 뛰어난 스펙과 더 탄탄한 서류, 인·적성 실력을 겸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대학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 선생님들과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 보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기업과 공기업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고민하던 찰나에 선생님과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제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황/문제/내가 한 일/경쟁력으로 분해하여 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남들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으로, 앞으로도 반도체 포토공정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후배들도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모두 원하는 직업을 얻어 사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형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턴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클라랑스 코리아	직무	마케팅 인턴
-----	----------	----	--------

3. 합격자원

전공	글로벌경영전공	다전공 이수	기술창업융합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3.3 / 4.5점	합격시 연령	23 세
자격증	ICDL		
인턴경험	사회적기업 리베라빗(현장실습)		
대외활동	록시땅코리아 시어캠퍼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대학생 실무위원, CSR Youth Forum 홍보기획팀,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동아리	학생홍보대사, 마케팅 동아리, 프로젝트 기획 동아리		
수상경험	롯데그룹 공모전 수상		
외부교육	리박스 컨설팅 Z커리어 1기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고려대학교 세종경력개발센터, 스펙업, 독취사, 아웃캠퍼스, 고파스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클라랑스 코리아, IBK 기업은행
서류	합격 기업명	클라랑스 코리아, IBK 기업은행
	불합격 기업명	클라랑스 코리아, IBK 기업은행
면접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 학년별 취업 전략을 수립하다]

(1학년 - 마케팅 이론적 기초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1학년 때부터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두었으며 소비재/뷰티 산업의 마케터를 커리어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과 차원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전공필수 교과목인 "마케팅"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비교과 차원에서는 교내 마케팅 동아리 및 프로젝트 기획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케팅 동아리에서는 DBR(동아비즈니스리뷰) 기사 분석 및 토론 활동, 크고 작은 마케팅 공모전 참가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기획 동아리에서는 강연팀 소속으로 국내 향수 기업 대표님을 섭외하여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기획 및 진행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교내외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습득과 더불어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종경력개발센터 잡아라 서포터즈 1기로 활동하였으며 홍보기금팀 소속 학생홍보대사 수습팀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Youth CSR Conference 대학생 실무위원 활동을 진행하며 홍보, 마케팅 역량 및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같은 관심 분야(마케팅)를 둔 사람들과의 접점을 늘려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2학년 - 마케팅 심화 역량 강화 및 이론의 실무 적용)

1학년 때는 마케팅 이론의 기초 지식에 대해 습득하였다면, 2학년의 경우 심화된 활동들을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교과 차원에서는 "소비자 행동론"의 심화되고 세분화된 마케팅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비교과 차원에서는 글로벌경영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인 "세종시 지역소상공인과 마케팅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학년 및 2학년 때 습득한 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여 학교 근처 레스토랑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내외 프로그램의 경우, 홍보기금팀 소속 학생홍보대사로 최종 선발되어 매월 교내 행사 기획 및 진행, 캠퍼스투어, 학교설명회, VIP의전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롯데그룹 대학생 공모전에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제출하여 전국 최종 4팀에 선발돼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고 세종우체국을 컨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에 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기획안 작성,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프로젝트의 총괄을 담당하였고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에 2학년 1학기 2학기 2회 참가해 각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YBM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멘토님들과 교우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업에 계신 마케터 선배님들을 뵈고 직무 및 취업에 관련한 질문들을 하였으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학년 겨울방학,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시점에 "사회적기업 리베라빛 전략기획팀 인턴"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해 신제품 와디즈 펀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김포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부서 소속으로 마케팅 실무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학년 - 관심 산업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 및 실전 취업 준비)

소비재/뷰티 산업의 마케터를 커리어 목표로 설정한 만큼 3학년 때는 산업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직무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을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로 인지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내외 프로그램의 경우, 1학년 때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계기를 바탕으로 교수님의 연락을 받아 "아름다운재단 연구 과제의 보조연구원(RA.)*"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등의 자료들을 리뷰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며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리서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뷰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뷰티 마케팅 실무 경험을 위해 "룩시땅코리아 시어캠퍼스"에 지원하였고 최종합격하여 룩시땅의 제품 특성을 파악하여 영상, 카드뉴스,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록시땅 코엑스 부띠끄에 대한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마케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리박스 컨설팅 Z 커리어 1기”로 합격하여 GE이사님, 한양대 교수님을 멘토로 배달대행IT플랫폼인 “바로고”의 브랜드컨설팅팀과 소상공인 마케팅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세종경력개발센터의 “교우멘토링”, “취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교우멘토링의 경우 구글에 재직중인 멘토님의 멘토링에 참여했으며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한 “레쥬메 작성 및 피드백” 활동을 진행하였고 멘토링 종료 시점에는 마케팅 직무에 중점을 둔 저의 레쥬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동아리의 경우 2020학년도 하계방학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및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가 준비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시고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인턴십! 클라랑스 프리 마케터 오디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무렵, 평소 많은 관심을 두고 확인하는 취업카페 및 취업커뮤니티에 외국계 뷰티 기업인 클라랑스의 마케팅 인턴을 선발하는 “클라랑스 프리 마케터 오디션”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인턴 채용 공고와는 차별화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클라랑스의 제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파악하여 광고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인턴십 지원이 완료됩니다. 1차 인스타그램 피드 심사로 10명을 선발하며, 2차 면접을 통해 총 3명의 마케팅 인턴을 선발하는 오디션 형태의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1차 심사 - 클라랑스 제품 광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다)

제품을 배송받기 위해 인적사항과 자기소개, 교내·외 활동 경력을 기재하였고 클라랑스 립 오일 제품을 배송 받았습니다. 제품의 셀링포인트, 광고 컨셉 등을 선정하기 위해 클라랑스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클라랑스 SNS 계정을 탐색하며 기존 광고에서 강조하는 셀링포인트 및 제품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후에,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광고의 모티브, 제품 셀링포인트, 타겟, 컨셉, 헤드 카피 및 서브 카피, 스토리를 기획하였으며 소비자행동론 중 소비자의 인지적 요소에 변화를 주는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여 광고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기획 내용 설명과 함께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2차 심사 - 클라랑스 코리아 사장님 및 임직원분들과의 심층 면접)

서류 심사를 통해 약 150명 이상의 지원자 중, 1차 서류 합격자 10명에 선발되었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이 약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기존에 공지되었던 2차 대면 오디션 심사 항목(오디션 지원 이유, 자기 PR 능력 및 SNS 활동도, 가치관 및 성취도, 화장품 관여도, 클라랑스 브랜드 이해도)을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라랑스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비롯해 주력 제품에 대한 조사, 브랜드의 철학 및 역사, 프랑스 본사 및 외국지사 광고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관분들께 저를 PR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우멘토링 때 완성하였던 마케팅 직무 중점 영문 레쥬메를 활동사진과 함께 세 장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작하여 4부를 출력해 면접 당일 지참하였습니다.

면접관으로는 클라랑스 코리아 사장님을 비롯해 임직원 3분, 총 4분이 참가하였으며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첫 질문으로 마케팅 관련 활동에 대한 질문, 클라랑스 브랜드 및 뷰티 업계 관련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활동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할 때 관련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여쭙어봤으며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는 사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최종 대면 면접의 불합격 원인은 개인적 역량에 중점을 둔 원인과, 경쟁자에 대한 상대적인 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 역량에 중점을 둔 원인의 경우, 자기PR 및 기존 활동에 대한 답변은 원활하게 진행하였지만 뷰티 산업 및 경쟁 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브랜드와 유사한 스킨케어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및 경쟁 브랜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프리 마케터로서 인턴 기간 동안 진행하고 싶은 활동, 진행하고 싶은 마케팅 등 합격 이후(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 또한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에 대한 상대적 원인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전 미션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4학년 또는 졸업자)이 대부분이었으며 화장품 리뷰 진행을 업으로 삼는 지원자 또한 존재했습니다. 마케팅보다는 뷰티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높은 관여도를 가진, 4학년 이상의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이 면접에 있어 불합격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이번 인턴십 지원을 통해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관심 분야의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의 마케팅 직무 교우멘토링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세 번의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케팅 직무에 관심을 두며 모두 1지망이었던 외국계 및 국내 대기업 마케팅 현직자 멘토님과 매칭되었습니다. 마케팅 직무의 업무 및 마케터로서 필요한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멘토님들께서 실제 이력서, 레쥬메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셔서 대학생활을 하며 진행했던 관련 활동과 경력에 대해 확인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여름방학 진행했던 구글 재직중인 멘토님과의 교우멘토링의 경우, 멘토님의 영문레쥬메를 공유해주셨으며 1차 레쥬메 작성 및 피드백을 통해 실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종 레쥬메를 완성할 수 있게 조언해 주신 것이 실제로 이번 인턴십 지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신분으로서 관심 기업 및 직무의 현직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은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과 직무의 멘토님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요소(직무 및 기업 관련, 자기소개서 관련, 면접 관련, 레쥬메 관련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애정을 갖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최대한 공유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부분 있어 설정한 목표와 취업에 있어 더욱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매학기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매학기 초, 학과 홈페이지에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고가 올라옵니다. 프로그램과 해당 교수님 성함만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메일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의드리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음에도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 신청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2학기 때는 많은 관심을 둔 분야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 참여의사를 밝혔고 한 학기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관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올려주셨는데요. 3학년이 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톡방을 통해 교수님께서 연구원에 관심 있는 학생은 지원하라는 말씀도 하셔서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교과)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동시에 전공 교수님 및 나와 같은 관심사를 두고 있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학기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포탈 수시 확인 및 관심 분야의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저의 경우는 대학 입학 후부터 관심 분야 및 직무가 뚜렷하여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들 중 저의 관심 분야 및 직무와 일치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참여했는데요. 아직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나 직무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중 "진로마블", "진로.취업 교과목", "취업특강", "고저스챌린지" 등 관심 분야와 기업 및 직무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며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인 S포탈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포탈은 세종경력개발센터뿐만이 아닌,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교내 센터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업로드 되기 때문에 진로.취업 외적인 부분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취업 카페 가입 및 취업 커뮤니티 수시로 확인하기]

"스펙업, 아웃캠퍼스, 독취사, 링커리어, 독금사..." 한 번쯤 들어보았던 이름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해당 네이버 취업 카페 및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공모전, 인턴십을 비롯한 각종 공고들이 매일 업로드 되며 전국의 대학생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진로.취업 관련 고민들과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카페의 경우 "네이버 카페"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취업 카페 및 커뮤니티가 아닌, 성격이 다른 취업 카페와 커뮤니티들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인 "독금사"의 경우 금융공기업 중심의 카페로 관련 자료들과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취업 카페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후, 본인의 목표와 일치하는 성격의 취업 카페와 커뮤니티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	일반행정(경영사무)

3. 합격자원			
전공	공공행정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4.34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35	회화점수(토스,오픽)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회계관리 2급		
인턴경험	국가근로, 산학연계현장실습		
대외활동	도전 프로젝트 학기, 학술발표 대회, 서포터즈, 학습도우미 활동 등		
동아리	프로젝트 기획동아리		
수상경험	교내 표창장, 성적우수상, 학과 발표대회 우수상, 학술발표 대회 입선		
외부교육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알리오, 잡알리오, 자소서닷컴 등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서류	합격 기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입사 희망자로서, 중간단계(서류전형) 합격과정을 아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준비전략

4학년 1학기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끝내고 4학년 2학기부터는 입사지원과 필기전형 준비(ncs 및 전공공부)에 매진하자는 준비전략을 세웠습니다. 취업시기는 4학년 2학기를 다니면서 졸업 전 취업 또는, 졸업 후 상반기에 바로 취업에 성공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 준비내용

4학년 1학기까지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사항(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토익 800이상)을 취득하고, 더불어 교육사항(행정학 전공 다수 이수, 경영학 전공과목 선택적 이수)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학기중 청년인턴을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직무경험(국가근로 5학기, 산학연계현장실습 2회)을 최대한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3)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제가 처음으로 공기업 정규직에 지원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100%평가(30배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훈 및 장애인, LH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전형에서 30배수가 걸리진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20 하반기 LH 자기소개서 기출문항(총 5문항:가~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원포부) LH 경영목표 중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나. (경험 및 경력활동) 본인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귀하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다.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본인 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가족 제외) (600자)

- ① 당시 의견 전달 및 소통해야 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기술
- ②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술

라.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가족 제외) (600자)

- 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나 좌우명을 기술
- ② 주변 지인과의 평소 관계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계기 또는 이유에 대해 기술
- ③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취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기술

마. (직업기초능력 : 공동체윤리) 지원자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소개해 주십시오. (600자)

- ① 고민되었던 상황을 기술
- ② 당시 대처 방안과 그 이유를 기술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1)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결론적으로, 필기전형 준비인 NCS 학습 및 문제풀이가 부족했습니다.

4학년 2학기부터 입사지원서 작성과 ncs 및 전공학습을 병행해왔는데 입사지원서 작성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사지원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필기전형 준비(ncs 및 전공학습)에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2) 자기분석

입사지원 과정(채용공고문 확인 - 기업분석 - 자기소개서 작성 - 입사지원서 작성)에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어서 저의 시간활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타이머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소개서 작성과 입사지원 과정에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문항을 묻는 경우에는 비슷한 문항이 출제된다는 것을 3군데 이상 기관의 자기소개서 작성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 과정에서도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기입의 경우 똑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기관마다 반복하는 작업이었기에 이에 대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엑셀로 저의 이력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문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비슷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엑셀로 빨리 필터를 걸어서 찾고, 해당사항을 복사 붙여넣기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사지원 과정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고, 입사지원 과정보다 1/5가량 시간이 투입됐던 필기전형 공부시간을 늘일 수 있었습니다.

3) 보완계획

기존에 설정해놓았던 준비전략대로 4학년 1학기까지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을 완비해서 서류전형에는 자기소개서 쓸 소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로만 100% 평가해서 서류전형에서 30배수를 채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에서 15배수로, 굉장히 배수가 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학년 2학기에 계획했던 입사지원 및 필기전형 준비 중, 필기전형 준비 부분에 소홀하고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도치 않게 입사지원 과정에만 준비를 치중하다보니,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더라도, 필기전형에서 모두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보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말로 가고 싶었던 기관의 채용공고문만 꼼꼼히 읽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서류평가기준 및 필기전형 출제과목만 빠르게 확인하여 패스하기

-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경험 및 교육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하루 일과중 ncs 및 전공학습에 대한 시간을 입사지원 과정에 대한 시간보다 많이 투입할 것

- ncs기본서 2회독과 과목별 문제집을 1회독을 우선 끝내고, 전공학습에 시간을 더 투입할 것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4년간 학교를 다니며, 참여했던 수많은 세종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중 특히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진로취업 정규교과목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진로취업 정규교과목을 수강해온 덕분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진로와 취업준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채용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을 파악하여 준비과정에도 조금씩 수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2) 교우멘토링

제가 관심있는 기관이나 산업군에 실제로 취업을 성공하신 학교 선배님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겪은 취업준비과정과 팁을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공공기관 입사라는 목표로 취업준비를 미리 해오신 분들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선배님들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기도 하였고, 시간활용법, 학습법, 정보채널 등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 산학연계 현장실습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했기에, NCS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욱이,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권한을 가진 현장실습생이라도, 현장실습을 통해 현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깨너머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4) 모의면접/면접클리닉

모의면접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전에 비해서 나아진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하나이며, 항상 끝을 보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취업을 희망한다면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서 취업성공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경력개발센터는 취업역량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이 생겨서 세종경력개발센터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고, 제가 원했던 정보들을 얻고 그 이후로 계속 세종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여 개설하는 특강이나 설명회,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해왔습니다. 덕분에,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특강을 통해서, 때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컨설턴트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교우멘토링의 선배님을 통해서 등등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지식과 경험을 위한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류전형에서 희망했던 기관들에 합격할 수 있었고, 면접을 준비하며 자신있게 자기소개와 경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후배님들도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인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 알찬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필기전형 준비에 몰두해서 취업에 성공한 후, 세종경력개발센터 취업 우수사례집, 교우멘토링 프로그램, 최종합격 취업수기 등을 통해 후배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SK C&C	직무	HRD
-----	--------	----	-----

3. 합격자원

전공	디지털경영전공	다전공 이수	-
합격시 평균학점	3.71 / 4.5점	합격시 연령	23 세
자격증	Ethereum Business Professional (블록체인 관련 자격증)		
대외활동	SK C&C X Founders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수료		
동아리	<p>MITP (디지털경영전공 학술 및 창업 동아리)</p> <p>[활동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년 반 활동 (2019년 동아리 회장 수행) <p>[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 제10회 MIS 포럼 기획 및 추진 - 천안공고 창업캠프 지원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맵 만들기'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천안시 소상공인과 MOU 체결) 		
수상경험	<p>[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독서 PT 대회 (인기상) - KU 세종 집현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p>[201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 전국 IT 프로젝트 경진대회 (우수상) - 2018 스타트업-청년매칭 마케팅 프로젝트 (대상) - 스타트업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장려상) 		

	[2019년] - 2019 스타트업-청년매칭 마케팅 프로젝트 (대상) -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전공 디지털창업프로젝트 스타트업 데모데이 (우수상) - SK C&C X Founders 블록체인 해커톤 (Creative BM상) - 소셜벤처 경진대회 강원/충청권 (우수상)
외부교육	2018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메이킹 프로젝트 수료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슈퍼루키 사이트 주로 이용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SK C&C / CJ 제일제당	
서류	합격 기업명	SK C&C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학우들 마다 자격증, 어학성적, 대외활동, 실무경험 등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흔히들 따는 자격증도 없고, 어학성적도 아직 없습니다. 대신, 대외활동과 실무 경험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취업 지원 시 그 부분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교내 학습지원센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며 단순히 학점이나 친구관계 이외의 것을 채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창업동아리에 들어가 대내 활동을 넘어 수없이 많은 대외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뛰어들며 그 과정에서 기획, 마케팅, 디자인, 조직 관리 등 분야를 막론한 폭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SK의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자발적으로 최고의 목표에 도달해본 경험, 과감한 도전 경험, 지원 직무와 관련되어 노력한 경험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경험들은 이와 같이 자발적인 움직임과 도전적인 성향을 중시하는 SK 자기소개서 항목에 채워 넣을 풍부한 소스가 되어줬습니다. 비록 학점도, 자격증도, 어학 능력도 미흡하지만 이것이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의 큰 공신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하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SK C&C를 애초에 가고자 목표한 것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에서 추진했던 교육 프로그램 및 해커톤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지원 시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산점을 얻는 것 외에도 실제로 해당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과 작게나마 몸을 담아 활동을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보다 큰 열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확연히 다르므로 꼭 가고자 하는 목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SK의 필기고사인 SKCT 는 대기업 인적성인 만큼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리영역은 대기업 필기고사 중에서도 최고난도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는 뺏속부터 문과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수학은 과감히 포기했던 수포자였습니다. SK의 경우에는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보통 약 1~2주 뒤 바로 필기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기고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결과 발표 후 딱 일주일 뒤 필기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 안에 수포자가 최고난도의 수리영역을 풀어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합격 발표가 나기 전 일주일 전부터 SKCT 문제집을 두 권 사서 풀기 시작했지만, 서류가 합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SK 입사를 희망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단순히 커리어를 쌓고 서류를 지원 후 합격을 기다릴게 아니라 최소 약 한 달 전부터는 SKCT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SKCT의 경우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전략,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 고난도 수리 영역 풀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SK는 인성 검사 결과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시험을 조금 못쳐도 인성 검사에서 SK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 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험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인성 검사 결과에서 적합성이 떨어지면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라는 기업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성을 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리영역이라는 약점을 보완해나가고, 서류전형 준비와 필기전형 공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저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특강, 말하기 클리닉 등 프로그램을 몇 번 수강해 본 적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꼽자면 2019년에 3,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세종경력개발센터의 스피치 Skill Up 프로그램(Scout Me)입니다. 저는 사실 발표울렁증이 있어서 청중 앞에 서면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외웠던 대본도 까먹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면접 단계에 대한 극강의 공포가 있었고 이를 조금씩 극복해나가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의 스피치에 대한 1:1 코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1:1 코칭에서는 면접 또는 피칭의 대본을 직접 검토해주시고 수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의 스피치를 촬영 해주셔서 발표 후 내 동영상 보며 자세부터 손짓 하나까지 섬세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스피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울렁증이라는 게 단기간 연습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보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강사님께서 시간을 쪼개어가며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시고 저와 같이 발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말을 편히 내뱉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려고 애쓰셨던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턱이 바로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화상이든 대면이든 면접관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접 스피치 스킬업 프로그램은 정말 취업을 앞둔 학우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대학교 3, 4학년생의 목표가 대부분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학교 1, 2학년의 대학생들은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이 제각기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공에 대한 지식, 친구들과의 관계, 취업보단도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업도 조금 빠지고 학점도 제대로 못받아가면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등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겠다며 당시 준비하고 있던 소상공인 관련 창업 아이템을 시장에 적용해보고자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고 MOU를 체결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해나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저의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현업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 듣기론 요즘 기업의 인재 채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학점이나 자격증은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현재 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공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이런 추세에서 학교 밖에서 쌓아온 경험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에 처음 채용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지원을 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도 처음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간은 딱 3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현재까지 해왔던 활동을 정리했고, 하루는 전반적인 내용 작성을 마쳤고, 마지막 하루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2년 반의 고된 창업동아리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서류 합격에서의 핵심은 장시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소스를 만들어내고 단시간 써내려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활동은 하기 힘들어졌겠지만, 현시대에서는 개인 역량을 쌓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학교라는 안정된 틀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잘 이용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만의 강력한 자산을 만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가스기술공사	직무	일반직(사무)
-----	--------	----	---------

3. 합격자원

전공	영어영문학과	다전공 이수	경영학과
합격시 평균학점	3.73 / 4.5점	합격시 연령	만 25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910	회화점수(토스,오픽)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국사능력검정1급		
인턴경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실습		
대외활동	대학혁신사업 주관 교내 HONORS프로젝트		
동아리	영어기사번역, 축구, 농구 소모임		
수상경험	HONORS프로젝트 우수상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해커스공기업, 우리취업아카데미, 에듀스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기술보증기금, 가스기술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조폐공사		
서류	합격 기업명	가스기술공사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가스기술공사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Study Smart-공부와 취업전략 모두]

저는 소위 말하는 '워라벨'을 위해 공기업으로 진로를 정하고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신념은 'Study Hard'가 아닌 'Study Smart'이기 때문에 취업전략과 학습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공기업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공기업 5~10곳 정했고, 그중에서도 정말 가고 싶은 기업과 나에게 유리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인지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업의 뉴스, 소식과 직무설명서 등을 보고 주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독취사, 공취모, 공준모 등의 카페에 가입해서 해당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기업은 그 기업의 공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어학점수의 가산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비수도권인재와 지역인재의 해당여부, 단일전공인지 통합전공인지 등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전공을 살리면서, 자격증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충청권에 부여되는 지역인재 우대를 받는 가스기술공사에 지원했고 4학년 2학기 시점에 서류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실제 NCS와 전공시험의 유형과 난이도를 체감하고 그에 맞게 더 Smart하게 공부하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 NCS와 전공은 1회독만 했고, 자기소개서에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합격과정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나에게 유리한 기업'을 명확히 인지한 취업전략과, 왜 본인을 뽑아야하는지를 체계적이고 키워드 중심으로 기술한 자기소개서가 담겨있습니다. 취업전략에 관련된 어학, 자격증, 대외활동 관련 사항은 8.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에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은 7.번 항목에서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시간활용이 당락을 결정한다]

제가 생각하는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는 첫째로 NCS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고, 둘째는 교내에서 듣는 전공공부를 객관식시험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합격원인은 명확합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시간투자부족입니다. 개념과 기본예제중심의 문제풀이를 하는 1회독으로는 공기업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몸소 체험하기도 했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기시험 이전에 투입되어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취업준비 한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산정하고, 시간을 활용해야하는지 느끼시고, 취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했고, 토익성적을 갖추기 위해 여름방학 내내 토익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합격에 필요한 첫째,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나에게 유리한 기업'을

명확히 인지한 취업전략. 둘째, 왜 본인을 뽑아야하는지를 체계적이고 키워드 중심으로 기술한 자기소개서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하기 전에는 토익, 서류마감 전까지는 자기소개서에 열중하며 필기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2회독을 하면서 출제경향대로 공부를 하며 준비를 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NCS점수와 전공점수가 각각 나오고 합격자의 평균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지에 따라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NCS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었고, 전공 관련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30%, 70%의 비율로 공부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공부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로 증명 받았기 때문에 공부에 확신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2020-2학기 온오프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에서 도움 받은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취업에 대한 방향성과 취업 준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NCS 관련한 직무설명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NCS직무설명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적용하는 것에는 미숙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S포털의 활용방법과 '에듀스취업컨텐츠'를 소개시켜주셨는데, 에듀스 덕분에 NCS 관련된 모의고사를 무료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CJ인사팀에서 일하시던 전문 강사님께 경영관련 직무에 대해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사에 중점을 두어 준비하는 것이 제 적성에도 맞고 준비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자기소개서를 봐주시며 첨삭 세션을 진행했는데, 소재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써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소개서 형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했고, 금방금방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수 자기소개서 사례와 면접 사례를 보여주신 덕분에, 타인과 저를 비교해 가면서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선생님과 취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상담하게 되었고, '2020-2학기 고학년 취업캠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실제 공기업 면접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PT면접을 봐주셨는데, 이를 통해 면접에 있어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기에는 이제 자신감이 붙은 반면, 면접은 항상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과 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투영시키는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업동아리, 취업캠프에서 배운 기업의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PT면접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착실히 준비하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왜 이 기업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녹여내며, 면접에 있어서도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취업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후배분들께서는 지금 저처럼 취업준비에 급급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편하게 4학년 2학기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한다는 말이 어렸을 땐 절대 다가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과하지 않게 저는 저학년 방학시간 중에서도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방학은 총 1학년 여름, 1학년 겨울, 2학년 여름, 2학년 겨울. 이렇게 총 4번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방학에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 토익, 계절학기 중 하나는 완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의 경우 방학기간 안에 충분히 1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원을 먼저 다니면서 실기를 준비했고, 실기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상태에서(진도의 60%) 필기 준비를 CBT기출문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필기시험 3파트중 2파트는 익숙한 문장과 용어들이어서 시험공부가 수월했고 5~6시간만에 기출문제를 풀고 정리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기시험은 나오는 문제유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도가 다 끝난 후 시험을 치르다보면 잘 푸는 파트와 항상 틀리는 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학원에서 틀리는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다보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의 경우에도 방학 중 하루에 강의 한 개만 듣고 복습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다른 과목보다 선생님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는 사실이지만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그 외에 다양한 이슈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기를 수 있으니 좋은 선생님을 골라 재밌게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토익의 경우에는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900점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공부했고 두 달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토익의 경우에는 LC를 해커스 한승태 선생님과 인강을 통해 학습했는데, 듣기 공부방법을 워딩과 스키밍으로 배우고,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RC의 경우에는, 항상 토익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A4에 기록했고 항상 나오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모아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익 실전에 대비해서 오전시간에 일어나 RC를 시간재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토익 때문에 발목 잡히고 취업에 있어 토익성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서러울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수능영어를 공부한 그 느낌으로 저학년 때 토익점수를 확보를 한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불필요한 시간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학기를 추천 드리는 이유는, 고학년이 되어 취업준비 하는데 큰 시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학년 때 학점을 많이 들수록 고학년 때는 취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또한 계절학기는 성적받기고 수월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절학과 더불어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때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대외활동을 쌓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며, 3~4학년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는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상담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받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들이 가득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학년 때는 자기소개서와 PT면접 등을 코칭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고용노동부	직무	일반행정
-----	-------	----	------

3. 합격자원

전공	국어국문학과	대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7 / 4.5점	합격시 연령	26 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45	회화점수(토스,오픽)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아리	학과 내 축구 소모임		
외부교육	노량진 공단기 학원, 노량진 메가공무원 자습실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공단기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국가직(전국)일반행정, 국가직 고용노동부, 경기도 일반행정
서류	합격 기업명	국가직 고용노동부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인적성시험 없음
면접	불합격 기업명	면접 불합격 없음
	합격 기업명	국가직 고용노동부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공부과정

평범한 1학년 생활을 보내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생 신분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추천, 이미 합격한 학교 선배의 추천, 학창시절 친구들의 경찰 소방 준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노량진에 입성하여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저의 멘토역할을 해주었으나, 워낙 아는 정보가 없고 뭘 물어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18년도 1월 1일부터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며 공단기 인강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해 4월, 6월 시험 합격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게만 느껴졌고, 7월부터 노량진 고시원에 살면서 공단기 학원 다녔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시 때 국가직은 전국 일행 지원해서 불합격했고, 경기도 일행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일 년 더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노량진 메가스터디 공무원 자습실에 들어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람쥐 쳇바퀴같은 생활을 1년간 계속했습니다. 초시 때는 노량진 친구들이 생겼으나 재시 때는 하루에 한 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을 만큼 혼자 공부만 하였고 국가직 고용노동부 직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방법

국어 : [이선재 쌤] 실강, 인강 들었고 1타의 장점은 안정화된 암기 방법, 커리큘럼과 교재에 오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권규호쌤 비문학 끊어읽고 끊어풀기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암기왕 권규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 [이동기 쌤] 문법을 깔끔하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심우철쌤 독해1000제 유형별 편을 풀었는데 같은 유형별로 독해 문제를 풀다 보니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시험 전날까지 독해1000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 [전한길 쌤] 두음이 도움 되었고, 한국사를 두음 암기법 없이는 빨리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 [써니 쌤] 전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강의입니다.

사회 : [민준호 쌤] 이 글을 읽고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2년도부터 고교과목이 폐지되어 사회 과목 선택이 불가하므로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부분을 쓰겠습니다. 고 3 때 자소서 쓰며 롤 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롤 모델이 없다. 누구처럼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얀 도화지에 내 삶을 그려나가고 싶다"라는 상당히 세상에 두려움 없는 문장을 썼던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선생님입니다. 본인의 직업에 대한 남다른 성실함에 놀랐고, 끊임없는 연구와 책임감에서 어떤 직업을 내가 갖게 된다면 저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담으로 들려주시는 가정생활의 면모에서 닮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면접준비

학교에 복학하여 면접 스터디를 해야했기 때문에 직접 세종시 지역 면접 스터디를 모집하였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학우 2분과 세종시 지역 1분 이렇게 넷이서 조치원역전 파스쿠치에서 주 1회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근처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팀장님과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면접 인강은 해커스 피티윤

쌤을 들었습니다.

□ 면접

○ 10월 27일 일산 킨텍스 오전 조

○ 면접 총평/분위기 : 한 분은 5분발표 담당, 한 분은 개별면접과제 담당(압박) 질문

같은 답변을 하게 만드는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하심. 앞의 가림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마스크 쓰시고 크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안 들림. 다행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셨다고 함.

오전 마지막 4번이었고, 앞에서 대기하는데 면접관 두 분이서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려 긴장되었음

안녕하십니까(평정표 전해드리고)

앉으세요 이름 말씀해주시고요

네 이종형입니다

[5분발표 제시문]

국민이 원하는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높은 결과. 이들 정책의 만족도 조사는 불만족. 정부는 범정부통합콜센터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관협력,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등 서비스 확대 추진 중 ~

[5분발표]

제시문은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소극적인 정부가 아닌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진 정부입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확대 추진중 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 제시문에서 유추한 공직가치는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처리를 하는 책임감입니다.

고용부에서도 책임감을 발현한 사례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적극행정온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주 날인제 폐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원래 근로자가 다 치면 원청에 가서 산재보험 처리신청을 하면 원청은 하청업체에서 해결하라고 미루기 일쑤였고,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처리를 미루곤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날인이 있는 산재보험신청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친 근로자는 곤경에 처하곤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설명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주 날인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살리기 위해 DM발송서비스, ARS전화자동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철호 근로감독관님의 사례에서도 책임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철호 근로감독관님은 산업안전 담당자들이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퀴즈형식으로 골든벨 대회에 참가하는 산업안전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레 산업안전담당자들이 법령집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기업에서도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장려했습니다.

이철호 근로감독관님의 민관협력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감독 중 나쁜사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 공개요청을 하였고 기업들이 수락하여 안전지식공유장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수 기업들의 협력으로 이곳에서 기업들은 좋은 사례를 배워 습득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과 내 축구소모임 집현전을 공식소모임화 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공식소모임과 비공식소모임의 차이는 학과 내에서 각종 대회 참가비나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소모임과 집현전 일정이 겹쳤을 시 공식소모임 학생의 연습을 안 빼주면 비공식소모임 일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집현전을 공식소모임화하기 위해 학생회 회의 안건에 의제하였고 집현전 대표로 참석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 투표에서 비용과 학생 수 문제로 반대가 많아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투표에 참여한 학생회 임원들이 각 공식소모임의 장을 한 자리씩 맡고 있어서 반대했던 거 같습니다. 회의에 안건을 제기하기 이전과는 다르게 학교공식 대회 참가비는 학과에서 대주기로 하였고, 남학우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여학우들도 대회에 와서 응원을 해주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팀장님께서 일을 직접 해보기 전에 지레 포기하는 신규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일단 해보고 어려우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용부에 입직한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소신 있게 일처리를 하는 책임감을 가진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표 마치겠습니다.

Q.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집행부서이고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5분발표를 보면 결국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얘인데...적극행정과 책임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2초 정도 생각함)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은 아직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적극행정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매뉴얼화되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적극행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용부는 집행부서인데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만들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왜 적극행정이 필요한가요?

A.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소득세 문제도 제도가 없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Q.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따를 것 같나요?

A.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작 성 내 용 =====

[직무형 : 희망 부처/업무, 전문성 노력과 경험]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업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이유 - 어머니께서 일을 하다 다치셔서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스터디원들과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도와드리고 연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이외에도 일자리 지원 여성 중장년 장애인 자활센터로 바로 안내해드리면 보람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적약자와 사회복지' '세계 속의 한국노인'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기지청 윤정희 근로감독관님의 브이로그, kbs의 근로감독관 취재 보도영상을 보았고,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레알노동법', '노른자노동법'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정보로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이 도움을 얻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댓글에 질문들이 있었는데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알바가 일을 잘 못해서 자르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답변 달음

=====

Q. 왜 실업급여 팀에 지원하였는지?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사촌동생도 임금체불로 고생한 적이 있고, 제게 공무원을 추천해 준 학교 선배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사촌누나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Q. 실업급여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제목만 말해보세요

A.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대답없이 더 말하라는 눈치셔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셔서) 혹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Q. 아뇨 제목만

A. 아...내용을 공부해왔습니다. 아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Q. 업무상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을지?

A.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Q. 정책 중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라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을 만든 이유가 주 7일 근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현재는 놀아도 임금 받는 날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아니...고용부에서도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본인이 필요한 지식을 위해 노력한 점은?

A. 대학생때 '사회적약자와 사회복지', '세계속의 한국노인' 교양과목을 수강하였고 고용노동부 유튜브 '노른자 노동법', '레알 노동법'을 시청하였습니다. 댓글에 많은 근로자 사업주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댓글에 알바가 일을 잘 하지 못하여 자르는 경우도 부당해고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한 지식으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답변 달았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셨음)

[상황형 제시문]

청년취업준비지원금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된 아버지의 소득수준 때문에 지원 대상 규정에서 제외되자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하지만 부서장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지원금 지급할 것 지시한 상황

===== 작 성 내 용 =====

<상황>

아버지가 소득이 많은 B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부서장은 실질적인 관계단절을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

<대처>

아버지와 실질적인 관계 단절이 맞는지 확인한다

어머니나 다른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한다.

주소지 이전 등 규정 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관계 단절 된 B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고안하여 부서장께 보고드린다.

후임자가 유사한 사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여 기록으로 남겨둔다.

=====

Q. 상황형 제시문에 대해 말해보세요.

A. 아버지가 소득이 많은 B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부서장은 실질적인 관계 단절을 인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Q.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관계 단절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소득은 아버지가 벌고 계셔도 실질적으로 어머니께서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나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서장의 지시대로 처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임자에게 유사한 사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Q. 실질적인 관계 단절을 파악한다는 것이 본 제시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A. 네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A.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거나 다른 민원인 분들이 나도 해달라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A. 그 실질적인 관계 단절이 된 상황을 같이 기록하여 그렇게 처리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Q. 그래도 지원을 할 생각인가?

A. 네 부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A. (잘 안들려서 갑자기 나의 지원동기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음) 지원동기요..??

Q.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하심 시간채우기인거 같기도 함)

A. 실질적으로 관계단절이 되어 어렵다면 그 청년이 범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발표를 하다가 빠진 것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A. (상황형 대처 3가지를 적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소지 이전 등 규정 내에서 처리한다'가 기억이 안났음)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분명 세 번째인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대학교에서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들어갈 때 면접을 보면 받는 질문은 다양하지만 결국 묻고자 하는 내용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20년 넘게 저로 살아왔지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들었고 10년 지기 친구에게 들었던 말은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성실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답변을 들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니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성실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도 제가 부족한 점을 찾는 발전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 (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필기에서는 시험 전날까지 영어과목 독해문제 풀이를 계속했던 것이 낮은 영어점수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필기시험에서 종료 중 치기 직전에 국어 문제를 고쳤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떨어졌을 것입니다. 시험 당일 긴장해서 쉬운 문제도 어렵다고 별표치고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합격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부족한 점을 인정한 점, 질문을 위한 질문의 상황에서 제 의견을 한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 합격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면접 복기 내용에서 [청년취업준비지원금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된 아버지의 소득수준 때문에 지원 대상 규정에 제외되자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하지만 부서장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지원금 지급할 것 지시한 상황]에서 저는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을 판단한 부서장의 지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면접관님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규정을 어기겠냐? 등의 압박질문이 들어왔지만 중간에 제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면접자 분들의 면접 복기내용을 보니 부서장의 지시와 반대로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들은 부서장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서장의 지시를 어길 것이냐? 라는 압박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 질문을 답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 의견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답변한 점이 합격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업을 같이 병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세종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을 듣고 면접 준비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면접이 끝난 이후 7급이나 다른 직렬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취업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모아뒀던 자기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첨삭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조리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를 차에 진행한 모의면접을 공무원 면접 전에 받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투나 인사, 태도 등 세세하게 코칭을 해주셔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자신 있는 지원자로 보이게끔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면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기만 했고, 공무원 면접에서는 1 대 1 코칭을 받을 기회가 적어 저의 문제점을 파악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면접을 위해 개인적으로 면접 코칭을 받으려면 스피치 학원이나 코칭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이 매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른 분들이 공무원 면접이나 회사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말씀드리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 취업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변 선배들이나 동생을 보고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선배들과 일본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과제는 일본인이 출연한 예능이나 tv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문화나 일본인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과 선배들과 조를 편성해서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신 모토카와 아츠시 요리사분께 DM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국 대학생들이고 일본어 수업 중 과제로 선생님께 대해 발표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여러분들과 인연이 닿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일한 한일 문화교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땅에 한국인 친구와 레스토랑을 열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매일 두근두근거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일생에 항상 두근거리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맛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언젠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빌어봅니다."라는 장문의 한글 손글씨로 써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다른 조는 인터넷 조사만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고 답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발표가 마친 후 처음으로 박수갈채를 받았고, 교수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성적은 에이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학창 시절 친구들과 막걸리에 있는 성분을 이용한 향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장소와 도구 없이는 하기 어려운 실험이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께 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님과, 주요 성분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서 만약 저와 선배들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동생과 친구들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답장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해서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부터 어려웠던 청년취업이 코로나를 만나 더욱 힘든 상황이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메리트도 공무원을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지만 고생을 꽤 했습니다. 운7 기3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운이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의 실력이 매우 비슷하고 어느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만점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부분도 있고, 국어의 어려운 한자, 어휘문제, 영어의 지엽적인 어휘문제, 한국사의 떨어트리기 위한 문제들은 누구나 찍어야 해서 4지선다 그 날의 느낌으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다섯 과목 전부 목표를 85-90점으로 잡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하게 공무원 시장에서 인강을 많이 듣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방대하여 그런 것이겠지만 결국 스스로 머리에 넣는 과정이 필요하고 인강은 기본강의로 충분합니다. 요약집 읽기+기출문제집 풀기 조합이 공부할 때 가장 효과를 봤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급 공무원에서도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선관위, 검찰, 출판직, 교정, 보호, 철도경찰, 지방일행, 지방교행, 지방사복 등 본인이 어떤 직렬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합격선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직무의 활동성, 업무가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공무원은 내 적성에 맞지않아"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취준하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시간이 나중에 합격이라는 장식장을 빛낼 하나의 전리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대우조선해양	직무	생산관리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기계융합공학과	다전공 이수	X
합격시 평균학점	3.56(3.78) / 4.5점	합격시 연령	26세
어학점수(토익,토플)	TOEIC : 800	회화점수(토스,오픽)	TOEIC SPEAKING : 140(6)
자격증	6SIGMA(GB), ICDL		
인턴경험	보수전장 생산팀(MSE-CA)인턴		
동아리	밴드 소모임, 클래식기타 동아리, 패션 동아리, 전자기계공학과 학생회		
수상경험	교내 캡스톤 경진대회 우수상 취득(운전자 눈 인식 자동 사이드미러 조절 장치)		
외부교육	K-mooc 반도체교육, 현대NGV 자동차공학교육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사람인, 잡코리아, 잡플래닛, 자소설닷컴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LA, 삼성전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오트론, 대우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ASML, 농심, 한국타이어, DB하이텍, 코오롱인더스트리, 도레이첨단소재, 현대모비스, 한화솔루션, 코웨이, 제우스, 일진그룹, 스택칩팩코리아, AMK, 경신, 모베이스전자, KCC, LG화학, 현대트랜시스, LG전자	
서류	합격 기업명	대우조선해양, 코웨이, 삼성전자, ASML, 경신, 제우스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대우조선해양, 코웨이, ASML, 제우스
면접	불합격 기업명	제우스, ASML
	합격 기업명	대우조선해양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저의 취업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력서에 많은 내용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의 내용 중 수상내역, 자격증, 동아리, 프로젝트, 인턴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2학년 때는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까지 학과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하여 프로젝트 내용으로 기입할 수 있었고, 3학년 2학기에 보쉬전장 인턴을 하여 저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1학기에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거머지며 이력서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소서의를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소서의를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도하였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글을 써보았고 여러 유형의 자소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저는 6개의 기업에 서류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20~30p 분량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재상, 핵심가치 등을 조사한 후 나는 각 인재상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3~5개를 작성한 뒤, 그 중 3개를 뽑아 저의 필살기로 만들었습니다.

뉴스와 최근기사와 같은 내용을 수집하며 대략 70~90개 사이의 인성면접 질문을 준비하였고, 전공면접 또한 해피레포트에 있는 면접예상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다음과 같은 면접을 보았습니다.

1. 영어면접

Q : 오늘 지원자의 하루는 어땠나요?

Q : 지원자는 어떠한 학과를 전공했나요?

Q : 오늘 당신 말고도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는데 지원자만의 차별화된 역량이 있을까요?

Q : 그러면 너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Q :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있나요?

2. 전공면접

Q : 자기소개 및 지원자의 긴장을 없애기 위해 간단한 토크(사는 곳 등등)

Q : 현재 코로나 사태가 유행인데 전기에도 코로나 현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을 설명해주실래요?

Q :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Q : 그러면 이 전자기유도 법칙을 통해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Q : AC를 DC로 바꾸는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Q : 휘스톤브릿지 회로에 대해 간단히 설명주세요.

Q : 멀티미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전압/전류 측정법에 대해 말씀주세요.

Q : 모터를 제어할 때 인버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인버터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말씀주세요.

Q : PID제어에 물어볼 것인데요. 정상상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선 어떠한 제어를 설계해야하나요?

3. 인성면접

Q :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해주세요.

Q : 현재 사는 곳은 어딘가요? 거제에 살아도 괜찮은가요?

Q : 대우조선해양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Q :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것이죠?

Q : 생산관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Q : 대우조선해양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Q : 간단한 포부 말씀주세요

Q : 상사와 트러블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Q : 조선소하면 떠오르는 것 3가지 말씀주실래요?

Q : 골리앗 크레인이라는게 조선소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주세요

Q : 선박 생산공정에 대해 알고계세요?

Q : 어떠한 선박을 만들고 싶으세요?

Q : 지금 과를 보니깐 저희랑 좀 안맞으시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Q : 본인의 과로 어떻게 생산관리에 기여하실 수 있으실것 같으신가요?

Q : 옆 지원자는 노래불렀는데..

- 전체적으로 예상한 답변이었기에 외우지 않고 즉석에서 진솔하게 말하듯이 하여 면접관님들 사로잡았습니다. 영어면접은 평소에 민병철유폰을 하였기에 만족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면접관님들 또한 너 같은 사람 뽑고싶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전 지원자는 노래불렀는데 말씀 나오자마자 '저도 전공면접 중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하고 노래불러서 박수세례 받고 꼭 회사에서 보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제 평가

- 전체적으로 긴장감 줄여주는 식으로 면접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모의면접을 먼저 해본 것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병철유폰을 통해 전화영어를 하였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을 모의면접관으로 설정하고 모의면접을 보았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면접이었지만 면접관님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면접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면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으며 현재 12월1일부터 입사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먼저 저는 이번 하반기에 정확히 30개의 기업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부터 남들이 모르는 중견, 중소 기업까지..

또한, 이번 학기에 17학점을 이수하며 취준과 학업병행이라는 고된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잠을 줄였습니다.

GSAT, 자소서 작성 등과 같은 취업준비를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하루 4~5시간의 잠을 자며 자소서를 적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소서를 10번 다시 읽었습니다.

자소서를 열심히 적어도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문맥상 어울리지 않거나, 비어있는 내용,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 이상 다시 읽고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합격자소서를 정말 많이 참고하고 선배에게 컨펌받았습니다.

많은 합격자소서를 읽고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후, 먼저 취업한 선배에게 컨펌을 받으며 자소서의 질을 높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3개의 노력을 통해 자소서의 질을 높여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저는 교우멘토링과 취업동아리가 가장 도움되었습니다.

교우멘토링 같은 경우, 선배에게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자소서 첨삭 등을 해주셔서 정말 취업준비생에게 희망과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업동아리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생산관리 직무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저의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현재 단군 이래 가장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어려울 정도로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 주위 동기들만 봐도 취업을 거의 못하니까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소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소서의 질을 높인다면 서류를 합격할 수 있고 면접을 위해 70~80개의 인성면접 준비, 회사에 대해 알아간다면 충분히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 취업이 가장 어렵지만, 저희 학교 아래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후배님들도 남은 학기 열심히 학업과 취업준비를 미리미리 병행하시며 원하시는 기업에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대한장애인체육회	직무	장애인전국체전지원 전문인력
-----	----------	----	----------------

3. 합격자원

전공	국제스포츠학부	다전공 이수	-
합격시 평균학점	3.73점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만 24세)
해외경험	대한체육회 태국 해외봉사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2종보통 / 컴퓨터활용능력2급 / MS Office PowerPoint B등급 / 특수아동지도사1급, 2급		
인턴경험	무니스튜디오 (마케팅부 인턴)		
대외활동	대한체육회 봉사단(발달장애) / 장애인복지관 봉사자 /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아르바이트 / 평택시민축구단 대학생마케터 / 충청권대학축구동아리연맹 대회운영팀		
동아리	중앙축구동아리 KUSMA(쿠즈마 회장) / 대한요트협회 요트선수(주장)		
수상경험	대한체육회 우수봉사자 표창 / 대한체육회 우수봉사조 표창		
외부교육	한국평생교육진흥원 특수아동지도사(20시간)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스포츠잡알리오 네이버카페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갤럭시아 에스엠 / 김포FC
서류	합격 기업명	대한장애인체육회 / 김포FC(진행 중)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대한장애인체육회
면접	불합격 기업명	대한장애인체육회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군 복학 후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 학과선배의 조언으로 봉사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진행하였고 보조강사로서 아이들에게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는 항상 뿌듯하고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장애인체육이라는 더 큰 범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같은 해에 첫 대외활동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7330봉사단을 시작하였고 2년간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팀에서 조장 및 총무역할도 맡으며 우수봉사자와 우수봉사소 표창을 모두 받았고 태국으로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컬링선수들 보조지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당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포츠이벤트 현장진행 경력을 쌓았습니다. 올 초 졸업을 앞두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특수아동지도사에 대해 공부하며 이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갔고 이를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에 대해 관심을 넓히고 스스로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및 자격증 공부를 하며 이력을 쌓았습니다. 전역 후 2년 반 동안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을 통한 전반적인 스포츠 지식과 의사소통능력, 일반 행정업무 능력을 기른 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였고 서류합격을 넘어 최종면접의 기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취업을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신분으로서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였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했기에 용기 내어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원 시 지금까지 쌓아온 관련 스펙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정도 관련 활동들을 기술하고 자기소개서를 녹여낸다면 서류전형은 합격을 할까? 운이 좋게도 서류전형 합격을 하였고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막상 서류에서 붙으니 자신감과 욕심이 생겼고 인적성 검사 합격 후 3차 최종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1명만 뽑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면접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저 포함 30명이었습니다. 지원자 5명, 면접관 5명의 5대5 면접이 진행되었고 자신감 있게 들어갔지만 결국 긴장을 많이 한 것이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지원동기, 기관분석, 시사분석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막상 면접질문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각 면접관이 질문 하나씩 지원동기, 해당직무 유사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에 또박또박 잘 답변했지만 두 개의 난해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 무엇부터 처리할 것이냐 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 습관의 장점과 빗대어 잘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였던 성격의 단점과 극복방법을 설명하라는 질문에서 당황하였습니다. 막상 단점을 이야기하자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옆에 지원자들은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 같은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오기 직전 면접관은 지원자들의 말을 끊고 다들 장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며 차례를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그 질문에서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면접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을 때 허무함이 너무 컸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것과 마스크착용으로 목소리가 크지 못했던 것이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자기분석이 부족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최종면접까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컸지만 막상 면접장에 같이 들어가니 모두 비슷한 수준이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긴장을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 면접이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나 자신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는 면접을 준비할 때 기관과 시사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을 더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장을 하지 않고 다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위에 있다는 자신감을 품고 면접장에 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다음에 있을 면접에서도 탈락이 아닌 최종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작년 말 취업관련 수업을 통해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역 이후 많은 대외활동을 경험하며 저만의 커리어를 꾸준히 쌓아왔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많은 전공 관련 스펙을 쌓았고 주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경력개발센터를 방문 후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상담선생님은 저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떠한 기관이나 직무를 정해놓은 것이 없이 스포츠분야 대외활동만 해왔었습니다.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본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노력과 결과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상담 이후 너무 주변의 말에 안주해있었다는 부분에 반성하고 2020년을 위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발걸음으로 산학연계 인턴십을 겨울방학기간동안 경험하였습니다. 마케팅부 인턴으로서 신생 창업기업에 첫 사회의 발을 내딛으며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을 배웠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스스로 사무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퇴근 후에도 홀로 남아 엑셀 공부를 꾸준히 하였고 대다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업을 위한 거대한 스폰서십 계약도 맡으며 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코로나시대로 전 세계가 어수선했던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안정감 있게 자기개발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받았던 선생님의 쓰디쓴 조언과 상담은 저의 마음가짐이 바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이가 주변보다 젊고 천천히 준비하라는 말보다 각자의 인생을 위한 준비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항상 나만의 최종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년, 분기, 한 달 등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비록 최종합격을 하지는 못했지만 취업을 위한 첫 시도였고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과 이력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스포츠학부 선배로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훌륭한 우리 학과 인재들은 많은데 인풋대비 아웃풋이 많이 아쉬운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대해 분석하고 이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들을 보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예를 들면 왜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생겼는지, 그 관심을 어떻게 극대화시켰는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서류전형에서 큰 이점을 점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 체육과 해당 기관의 직무분야로만 스펙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통해 얻은 협동심, 리더십 부분도 스포츠 산업 분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아리활동 회장을 하며 얻은 업무 능력과 리더십 부분은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올라갔을 때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첫 번째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장을 맡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라는 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과 단체생활에서 보이는 적극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면접뿐만 아니라 기업에 입사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결과물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선후배들이 훗날 원하는 현장 및 기업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회로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다전공 이수	-
합격시 평균학점	3.9점 / 4.5점	합격시 연령	26세
어학점수(토익,토플)	-	회화점수(토스,오픽)	토익스피킹 Lv.6 (150점)
자격증	스프레드시트실무2급, 운전면허증, ICDL COMPUTING(PYTHON)		
대외활동	코멘토 현직자 멘토링		
동아리	취업동아리, 농구소모임, 전공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		
수상경험	교내 성적우수상, 2020 디스플레이 챌린지 공모전		
외부교육	IMID, 메모리아카데미, 최종현학술원 과학혁신컨퍼런스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사람인, CATCH, 잡코리아, 잡플래닛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LA, AMK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KLA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면접	불합격 기업명	KLA
	합격 기업명	-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를 재학 중에 총 평점 3.9점, 전공 평점 4.22점을 형성하며 전공지식을 잘 다져두었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연구생 활동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Micro LED 정렬 실험 진행 및 실험에 사용될 소자를 직접 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주입기구의 설계 및 작동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AR/VR 체험관 근로장학생 활동을 통해 장비들의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한 경험들과 교내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를 수리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근로장학생 활동을 통해 KLA의 CS엔지니어라는 직무와 유사한 활동을 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교외 활동으로는 코멘토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경험과 AR glasses for AED 아이디어를 통해 2020 디스플레이 챌린지 공모전에 참가 및 수상 경험과 해당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KLA의 면접은 제 인생의 첫 면접이었습니다. 해당 면접을 복기해 보면 3명의 지원자와 약 6명의 면접관이 ZOOM에 접속하여 다대다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첫 질문으로는 1분 자기소개를 한 사람씩 진행했습니다. 그 후 면접관님께서 현재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에 합격한 상태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답변한 사람은 현재 면접을 진행 중인 KLA만 바라보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면접관께서는 다른 기업에 지원하지 않았는지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해당 지원자는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 답변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 저에게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대로 “삼성전자와 KLA 두 기업의 서류에 합격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두 기업에 모두 합격한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요?”라는 꼬리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저에겐 꼬리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된 면접에서 저에겐 꼬리 질문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체적인 면접을 복기해 보면 저는 엄청나게 잘한 부분도 없지 못한 부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KLA의 면접을 보러 갔다면 해당 기업에 정말 입사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데 면접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KLA 둘 다 준비 중이라는 답변도 이런 아쉬운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삼성전자 면접에서는 꼭 입사하고 싶은 예비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 코멘토 현직자 멘토링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 교우멘토링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졸업자 중에 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렬에 종사 중인 재직자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비, R&D, CS엔지니어 등 여러 직무의 선배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지식, 맡으신 직무에서 하시는 업무 또는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 그리고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크림슨 취업 강의 : 공기업과 사기업의 전반적인 취업 프로세스, 직무 선택 및 기업 선택을 위한 조사 방법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적성검사의 경우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취업을 준비하며 치러야 할 시험들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을 진행할 때의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동아리 :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재직하셨던 멘토님께서 이공계 학우들과의 취업동아리 활동을 이끌어가시며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시간 외적으로도 학우들과의 스터디를 형성하여 취업 공고 공유, 자기소개서 피드백, 매주 모의 인적성검사 시험 진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번 2020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취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전 취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기업이 모셔가겠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약 20개의 회사에 지원서를 작성했지만 저는 단 두 개의 회사로부터 서류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18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서류에서부터 저를 받아주지 않더군요. 당연하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책을 하기보단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저의 동기도 저와 같은 결과를 받아오고 있고, 흔히 우리 학교보다 입시 결과가 높다는 학교의 재학생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류 합격을 한 곳이 있는 것 자체가 우수한 것이더군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 과정을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후배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학년, 늦어도 3학년 초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일을 찾는 활동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면 더욱 빨리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세종특별자치시	직무	일반행정
최종/중간합격시기	2020년 9월	입사년월	2021년 7월 예정
		※최종합격자만 작성	

3. 합격자원

전공	공공행정학부	다전공 이수	해당 없음
합격시 평균학점	2.9점/ 4.5점	합격시 연령	27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920점	회화점수(토스,오픽)	해당 없음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동아리	중앙동아리 '비트 앤 소울', '별빛 향해', 'CCC'		
수상경험	스피치 스킬업 장려상 수상, 고저스 챌린지 장려상 수상		
외부교육	2020-6회차 해외취업특강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공무원 단기 학교(공단기) 카스파 김중규 선행정학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 다음 카페 '선재국어 연구소' 다음 카페 '이동기의 공무원 영어 카페' 밴드 '김규대 사회 & 행정학' 다음 카페 '공무원 면접시험 대비 "공직역량발전소"(by.피티윤)'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국가직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서류	합격 기업명	세종특별자치시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세종특별자치시
면접	불합격 기업명	※세종특별자치시 외 다른 지역은 모두 필기시험 탈락
	합격 기업명	세종특별자치시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1. 공무원 준비의 시작과 방향기

공무원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전역을 하고 나서 2017년부터였던 것 같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먼저 합격한 동기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 단기 학교'라는 학원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내가 목표했던 것은 9급 일반행정직이었는데 뒤늦게 과목이 5개고 그 중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두 과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친구는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행정학과 행정법을 선택했다. 그래도 나름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있다고 생각해서 전공과목을 고른 것이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1월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까지는 3개월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굉장히 급하게 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아직 목표의식이 별로 없었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다섯 과목 전부 기본 강의 정도만 듣고 기출은 아예 손도 못 댄 채 시험장에 들어갔다.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을 따로 보았기 때문에 1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4월에 국가직 시험, 5월에 지방직 시험, 6월에 서울시 시험 이렇게 3번이었다. 하지만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다시 과거의 나태한 나로 돌아갔다.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까지 남은 2~3달의 시간을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허비했다. 준비하던 첫해에는 당연히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가볍게 한번 쳐봤다고 위안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내년 시험까지는 다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었고 비교적 많은 남은 준비 기간에 몸과 마음은 건잡을 수 없이 풀어졌다.

사실 이렇게 첫 1년 차에는 이렇다 할 공부 방법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1년을 놀면서 보내고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허울만 공시생인 허수 공시생으로 용돈 받으면서 나태하게 시간을 버렸다. 그러다 2019년 국가직 시험 날짜가 다시 다가왔고 합격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부량으로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 2019년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염치없게도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고 시험을 보고 나와서도 죄책감 따위는 들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대전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시험을 잘 봤냐고, 이번에 합격할 것 같냐고 물어보는 여자친구였다. 내 공부에 대해 전혀 걱정도 없고 항상 나를 믿어주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불현듯 불안감이 몰려 왔다. 나는 이번에는 잘 모르겠지만 2달 공부 열심히 하면 지방직은 해 볼 만할 거 같다고 얘기했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 한 달 남았던 5월에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말했다. 나는 당연히 다음 달 지방직 시험도 떨어졌고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2. 공부 방법

모든 시험이 끝난 2019년 8월, 이때부터가 나의 진짜 공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장황하게 나의 실패 경험을 쓴 것은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는 간절함이 크지 않아서 나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갖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2018년부터 공부를 했으므로 과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었지만 너무 띄엄띄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가자는 마음으로 기본 강의부터 새로 수강을 시작했다. 내가 들은 학원은 2달 단위로 강의를 짜여 있는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내 페이스대로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말을 들어 보면 보면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말들이 많았고 그대로 해 보자고 생각했다.

(1) 국어

1) 개괄

사실 국어의 경우는 일주일에 2일 혹은 3일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짰지만, 공부량과 시간 대비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기에 기본 강의만 듣고 나머지 비문학과 문학 파트는 시험 직전에 잠깐 스퍼트를 올려서 혼자 공부를 했다. 하지만 절대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무조건 인강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국어 독해를 놓으면 안 된다. 국어 공부를 미루다가 시험 직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해력은 단기간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기본 어휘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면 매일 매일 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에 5지문씩이라도 꾸준히 풀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 9급 시험의 특성이 국가직은 독해, 비문학의 비중이 높고 지방직은 문법 문제의 비중이 국가직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독해와 문학의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문법과 한자 문제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글 읽는 연습이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 싸움이다.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많이 하고 모의고사 강의를 꼭 꼭 들어야 한다. 모의고사 강의에서 실제로 적중되는 문제들이 많다.

2) 문법

독해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문법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독해는 아무리 독해력이 떨어져도 한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꼼꼼히 읽으면 문제를 맞힐 수는 있다. 하지만 문법은 다르다. 띄어쓰기나 시험에 꼭 나오는 어휘, 문법 포인트들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들에게는 거저 주는 문제지만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독해보다 어려워진다. 따라서 문법은 반드시 강의를 듣고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형태소나 띄어쓰기, 맞춤법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은 기출 문제까지는 꼭 익혀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단순히 답을 맞히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에 있는 4가지 선지들을 다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출은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맞힌다는 개념보다 문제 자체를 기본서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꼭 익혀야 한다. 문법을 절대 놓치지 말자 문법이 완성되면 국어에 자신감이 분명히 생긴다.

3) 독해

독해는 강의보다는 스스로 많이 풀어 보는 게 중요하다. 독해는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자 실력이 늘지 않으며 남이 분석해 주는 건 본인의 독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경우도 독해를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큰일 날 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욱 독해를 강조하고 싶다. 위에서 말했듯이 독해는 단기간에 늘지 않는다. 요즘 공무원 강의를 하시는 강사 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많이 풀어 보고 싶은데 풀 게 없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학원에서 파는 책들과 자료들만 풀어도 시험 칠 때까지 다 못 보고 갈 것이기에 그냥 꾸준히 본인의 수준에 맞게 많이 풀어 보면 된다.

구체적인 독해 방법은 우선 핵심어와 조사들, 부사어들에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긴 글을 읽다 보면 중간까지 읽다가 위에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에 글의 핵심어에 본인만의 표시(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를 하고 앞의 내용과 순접인지 역접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들에도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지만', '따라서' 등의 접속 부사에도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글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주장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므로', '-기에' 등의 어미에도 신경을 쓰면 이어지는 글 내용 파악에 용이하다. 어쨌든 독해는 스스로 많이 풀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4) 문학

사실 문학은 할 말이 별로 없다. 문학과 독해는 공부량에 비해 성적이 잘 나와서 문학은 기출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연습하는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사고가 잘 되고 감이 있는 사람들도 필수 작품들은 꼭 알아둬야 한다. 그리고 문학은 독해보단 강의의 중요성이 크다. 문학 작품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시어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일 뿐 문학 작품은 기출 범위와 선생님께서 짚어 주시는 부분,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 정도를 알고 가면 좋다. 만약이라도 시험에서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면 그건 복불복이고 나머지 수험생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르는 문학 한 개 틀려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만약 다른 과목들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기본서에 있는 작품들과 기출 범위까지는 꼭 알고 가자.

5) 한자

한자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가장 짜증나고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일 것이다. 출제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시간을 안 쓰자니 불안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 다른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한자는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이다. 나도 시험 치기 직전에 조금 본 게 다다. 하지만 한자를 아예 안 해 버리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진짜 계륵 같은 존재인데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나 기출 범위까지는 공부하고 가는 것이다. 틈틈이 공부하라는 말도 말이 쉽지 결국엔 따로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데 힘들더라도 한자에 하루 10분만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나도 만약 한자를 포기하고 시험을 보러 갔다면 꽤 타격이 컸을 것이다. 두 문제 모두 조금만 공부했다면 맞힐 수 있을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하루 10분도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기출이나 모의고사 강의 때 선생님께서 짚어 주시는 부분들이라도 꼭 기억한다면 간단한 문제들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강사 분들 측이 좋다.

(2) 영어

1) 개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영어였다.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하고 성적 올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원래 영어 베이스가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니 쉽지 않았다. 영어는 그 어떤 과목들보다 감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기로 계획을 짰다. 처음에는 기본 강의를 두 달 정도 들었고 그 다음 기출은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문제를 풀고 지문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했다. 기출 끝내고 난 특이하게 고득점 30제 문제로 바로 넘어갔고 거기서 좀 좌절을 했는데 그래도 매일 공부하면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10문제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모의고사와 하프 모의고사를 병행했다. 영어도 하프에서 적중되는 지문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하프 지문은 한 번 풀고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문법

영어 문법은 강의를 필수다.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한다. 나는 처음엔 기본서로 문법 강의를 듣고 나중에는 핵심 100포인트라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작은 책자를 들고 다니며 문제 풀이와 병행했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난 뒤에 또 들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꼭 문법 문제를 풀고 난 뒤에는 해당 파트를 기본서에서든 요약서에서든 찾아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문법 공부다. 문법 포인트들만 달달 외우면 안 되고 그 포인트들이 적용돼 있는 문제들을 풀어 보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아무리 공식을 알고 있어도 막상 영어 문장으로 나오면 자기 식대로 감으로 풀어 버리게 된다. 문법 포인트들을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시켜 절대 감으로 푸는 일이 없도록 하자.

3) 독해

영어의 꽃은 독해다. 제일 틀릴 확률이 높고 성적 올리기 어렵다. 독해는 하프 모의고사를 이용해 매일 풀면서 감을 익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완전 영어 노베이스라면 기본 강의로 독해 방법부터 배우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있다면 하프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해설 강의에선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지문을 일일이 다 해석·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

국어보다 독해 공부할 때 강의의 비중이 높다.

영어 독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앞 내용을 까먹는다. 그렇기에 첫 문장을 꼼꼼히 읽고 주제문을 꼭 표시해야 한다. 독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다양하지만 주제문 표시하고 답을 고르는 순간까지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문 뒷부분에서 예시로 나온,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에 속아 엉뚱한 답을 고르지 않기 위함이다.

4) 단어

학창시절부터 꼭 해야 하지만 그렇게도 하기 싫은 영어 단어 공부. 영어 단어는 그냥 암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팁이 있다면 강사 분이 만드신 어플을 쓰는 것이다. 단어장 어플이 있는데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틈 날 때마다 볼 수 있어서 좋다. 따로 어플과 똑같은 단어장이 책 버전으로도 있지만 난 책 단어장은 한 번도 안 보고 다 어플로 공부했다. 이걸 취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단어장에 총 3000단어가 있는데 일별로 30개씩 총 100일 치가 있다. 처음엔 하루에 3일 치씩 즉, 90개씩 외우다가 나중에 회독이 늘어갈수록 5일치, 6일치씩 외웠다. 마지막에는 그냥 하루에 100일치 다 볼 수 있는데 매일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3) 한국사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대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 전까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한국사라고 말했을 것이다. 세상 정말 싫은 과목이었다. 시대 나열돼 있는 도표만 보면 속이 울렁거렸지만 공무원 준비하면서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됐다.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듯하다. 학창시절 국사 선생님들은 전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하지만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한국사의 매력에 빠졌다. 한국사도 일주일에 2~3일 정도로 계획을 세웠고 그 어떤 과목보다 강의에 의존했다. 한국사는 말 그대로 암기 받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정리하고 머리에 넣기엔 강의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 특히나 비슷한 이름, 지엽적인 내용들은 아무리 봐도 헛갈리고 잊어버린다. 강의를 최대한 이용하자.

개인적으로 한국사는 유적이거나 문화재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께서 국사 선생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경주나 절이나 유적들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한국사는 싫어했지만 문화재는 좋아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곳들을 언젠가 가볼 생각을 하면서 시험 준비 기간을 버텼던 것 같다. 한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흥미를 먼저 붙였으면 좋겠다.

한국사는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를 여러 번 회독했다. 그리고 압축 강의나 테마 강의들로 짧은 시간에 전 범위를 훑었다. 한국사는 기출에 나온 사료들이 중요한데 강사님이 찍어 주시는 사료들은 체크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암기 과목인 만큼 선지들이 그냥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지들을 외워야 한다. 암기 방법은 따로 없고 계속 반복하면 된다.

(4) 행정학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었는지 깨닫게 해 줄 뿐이었다. 행정학개론은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막상 공무원 강의를 들으니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일단 행정학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계획을 짰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선택 과목임에도 다른 과목과 시간 투자는 비슷하게 한 것 같다. 행정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를 비우는 것이다. 본인만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고집도 꺾어야 한다. 행정학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칫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본인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머물러 버리면 출제 포인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 봐야 하는 부분과 보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행정학도 강의가 중요하다. 사실 한국사처럼 강의에 의존해도 되지만 난 기출 위주로 혼자 공부한 편이다. 일단 기본 강의를 두 번 정도 반복하고 기출로 들어가서 모의고사 풀기 전까지 그냥 기출만 봤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출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처럼 지문들을 당연히 외워야 되고 문제의 답만 맞히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행정학은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공부해야 한다. 강사님께서 다 짚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된다. 옆길로 새지만 말자.

(5) 사회

놀랍게도 행정법이 아닌 사회다. 2018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행정법을 골랐지만 급한 마음에 기본 강의를 건너뛰고 압축 강의로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행정법에 질려 버리고 말았다. 물론 행정법이 나중에 시험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버티지 못하고 2019년 초에 사회로 바꾸게 되었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 파트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세 과목이나 다름없는데 과목 특성상 깊은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얇고 넓다. 범위는 많지만 모든 것이 겉핥기식이다. 기본 강의는 필수로 들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강의보단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법과 정치, 사회문화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강의 듣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발목을 잡는 게 경제다. 경제에는 계산 문제가 있고 그래프, 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 마지막 과목인데 혹시라도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가 걸리면 일단 넘기고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는 특이하게 기출이 안 중요하다. 한 번 풀어서 봐야 하지만 다른 과목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답을 찍고 넘어가면 된다. 기출이 끝나면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야 한다. 사회는 일주일에 2일로 계획을 짰는데 확실히 다른 과목보다 비중을 적게 뒀다. 대신 모의고사를 매주 3회분씩 풀었고 실제 시간을 재면서 실전 연습하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행정법의 경우 문제 푸는 데는 10분 내외로 빨리 풀지만 사회는 계산, 분석 문제가 나오면 20분 풀로 잡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3. 필기 합격, 면접, 최종 합격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웬지 2020년에는 합격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2020년이 내 마지노선이었고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복학할 계획이었다. 마지막 도전이었기에 더 간절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월 잡혀 있던 국가직 시험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월 이후로 밀리는 일이 일어났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더 주어졌기에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막 시작한 초시생들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결국 국가직 시험은 6월 지방직 시험 이후인 7월로 밀렸고 이례적으로 지방직 시험을 국가직 시험보다 일찍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를 포함한 수험생들도 그렇고 학원도 예상 밖의 일정 변화에 당혹스러워 했다. 학원에선 부리나케 지방직 시험을 겨냥한 커리큘럼을 급하게 짰고 나도 급한 마음에 지방직 모의고사부터 풀며 매일을 불안 속에서 공부했다.

6월 13일 지방직 결전의 날이 왔고 자신 있게 고사장으로 들어갔다. 시험 시작하니까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흘렀다. 거의 처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간헐적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아팠다. 그래도 시간 내에 다 풀었고 체크해 놓은 애매한 영어 문제 점검까지 끝냈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 발표가 늦어져서 시험 끝나고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 8월 17일에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명단에 내 수험 번호가 있었고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갔다. 면접은 해커스 학원의 피티윤이라는 강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물론 지방직 9급은 거의 필기 성적순이라 면접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강의 결제는 하지 않고 기출 문제 정도만 보고 혼자 준비했다. 면접을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거라 필기보다 훨씬 떨렸다. 면접 기출은 지방직인 만큼 세종시의 현안, 시정, 그 외 시 관련 사항들이었다. 자기소개, 공직관, 세종시 현안, 시정 등을 준비해서 8월 31일에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시청에서 진행되었고 한 명의 면접자와 세 명의 면접관으로 이루어져 면접자 한 명당 약 20분씩 면접을 보았다. 당시 너무 떨려서 면접이 끝나고 질문들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숙하고 진지했다.

처음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2분 정도 해 보라고 하셨는데 긴장해서 처음에 인사와 수험번호 및 이름 말하는 걸 깜빡해서 중간에 계셨던 면접관 분이 한숨을 쉬셔서 아무 말도 못할 뻔했다. 그리고 인적성 관련 질문보단 세종시 정책에 대해 많이 물어 보셨고 자소서에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다고 써서 생각해 본 방안이 있냐고 질문하셨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시설들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용을 유도해야 도시재생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또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세종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등을 물어 보셨고 마지막에는 전공 관련 질문으로 거버넌스에 대해 물어 보셨다. 대체적으로 차분히 대답을 한 것 같아서 후회는 없는 면접이었다.

그렇게 약 열흘이 흐르고 9월 11일 최종 합격 발표 날이 되었다. 필기 성적은 괜찮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합격에는 문턱에도 못 닿아 봤기에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다. '내가 진짜로 합격을 했을까?', '나는 이런 시험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왠지 이렇게 순조롭게 합격이 안 될 거 같은데. 내년 한 번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이 든 채로 명단을 봤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제야 좀 안도가 됐고 누구보다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해 주셨다. 그리고 차례로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다들 축하해 주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 (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합격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간절함이었다. 나는 학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그야 말로 뒤가 없었다. 낭떠러지에 선 기분으로 일본일초를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했다. 몇몇 수험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공부한 기간에도 스마트폰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다. 정보를 찾거나 사전을 찾거나 단어를 외울 때나 기기 하나로 해결이 되니까 공부에 얹어선 안 될 필수품이었다.

또한 합격 수기를 보지 않았다. 다들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없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해 보기 위해서 합격 수기들을 보는데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은 다 다르다. 누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밤에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5시간만 해도 지치는 사람도 있다. 절대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태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억지로 공부 시간을 늘린다면 그 후유증이 며칠 혹은 몇 주씩 지속될 것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손해가 더 크다.

나도 남들 공부법에 휘둘리기 싫어서 내가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눈이 늦게 떠지면 늦게 떠지는 대로 공부하면 되고 그때부터 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면 오히려 많은 시간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알차게 능률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대신 공부하는 중에는 아무 것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다행인 점은 적어도 공부할 때만큼은 탄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부를 아예 멈추고서 차라리 하루를 쉬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하다가 핸드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지는 않았다.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쉬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또 공부를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꼭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장기전에선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것들이 꼭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정말 좋은 친구였다. 중독되고 공부할 시간에도 영상만 보고 있다면 당장에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겠지만 잘 활용한다면 공부가 끝나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좋았다. 물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깔깔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다. 운동이나 활동적인 취미가 사실 더 좋을 수 있지만 에너지가 없어서 방에서 유튜브만 봤다. 쓰고 보니 추천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웃고 싶을 땐 가끔 보는 건 좋은 것 같다. 가볍게 운동도 꼭 해야 한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복학하고 나서 한 것들이라 공무원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임용이 되었을 때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 고저스 챌린지에서는 세종시의 예산을 스스로 알아보고 분석함으로써 세종시의 예산과 정책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보고서 작성하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고저스 챌린지 기간에 따로 전화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임에도 신경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임용 전까지 남은 학기를 다니면서 더 많은 대외 프로그램들과 교내 프로그램들을 해 보면서 역량을 쌓아 가고 싶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요즘 취업난에 다들 힘들어 하고 있다. 일자리가 주는 만큼 안정적이고 아직 공정한 시험을 통해 인력을 뽑는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뜻을 두고 도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솔직한 말로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봉사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2019년 시험에 떨어지고 왜 내가 공무원이 되어 하는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그냥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고 연금 때문이라기에는 내 의지가 너무 확고했다. 두 번 실패를 겪고 2019년 10월에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축제에 스타트업 위크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했다. 남을 도우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고 진심으로 공무원이라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에 꼭 종사하고 싶었다. 다섯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만 합격해서 아무 책임감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은 변한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젊을 때 합격하는 그 순간에조차 철밥통만 찾으며 일에 아무런 열정이 없다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30년을 근무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변할지라도 이 젊은 청춘에 공직을 선택한 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돈벌이 수단에 그친다면 우리는 왜 공무원이 되어 할까. 공무원은 그냥 박봉인 직장인이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기업과 달리 비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손해 보는 일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해야만 할 때도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관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갖춘 상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깊이 공무원을 갈망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다. 이제 12월이고 내년 국가직까지 약 4개월이 남았다. 분명히 120일 남았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다가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또 그 조급함이 사라지고 다시 나태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년 4월 혹은 6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유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6개월은 없는 셈 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모든 것을 걸어 봤으면 좋겠다. 6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다, 분명 그 사이에 여러 번 슬럼프도 오고, 내 공부에 확신이 안 서고, 남들보다 한참 뒤쳐진 것 같고, 나는 아직 기출도 다 못 끝냈는데 모의고사 풀고 있는 다른 수험생들을 보면 눈물도 날 거다. 그래도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 7월에 처음 공시에 뛰어든 사람들의 10분의 1도 마지막까지 못 간다. 다들 중간에 낙오하고 프리패스 사 놓고 3분의 1도 못 듣고 책도 새 책인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7월에 시작한 사람 중 끝까지 가는 '진짜 공시생'들 즉,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더라도 자극 받는 거 외에 낙담은 절대 하지 말고 지금 페이스대로 내년까지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자.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코레일	직무	사무영업
-----	-----	----	------

3. 합격자원

전공	중국학전공	다전공 이수	GLEAC
합격시 평균학점	3.6 / 4.5점	합격시 연령	28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915점	회화점수(토스,오픽)	
기타 외국어	HSK 5급 216점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대외활동	조치원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잡알리오, 워크넷, 독취사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코레일		
서류	합격 기업명	코레일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공기업 사무직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으로 4학년에 진학하기 전 방학부터 하반기 채용 지원 전까지 각종 공기업 취업에 관한 자료들과 취업학원 및 학교의 대학일자리 센터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계획을 수립해 갔습니다. 우선 저는 공기업을 지원할 때 지원의 폭을 확장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자격증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토익을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인식하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 틈틈이 토익 단어장을 통해 암기하고 스스로 시험을 보면서 어휘 지식을 쌓았으며 일주일에 2번 정도의 토익 LC부분에 대한 문제를 실제 토익시험과 동일하게 OMR카드를 준비해 들고 풀면서 높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 까지 연습을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가산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격증이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되어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 교과목 수업이 끝나고 스스로 필기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주말을 통해 필기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다음 실기에 대한 연습시간을 가지고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기시험은 평소에 컴퓨터로 잘 다루지 않던 부분을 공부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어 4학년1학기가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에 컴퓨터 학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시험과 같은 모의고사의 경험을 쌓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취업준비도 하고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에 보람된 일을 남기고 싶어 해커스에서 출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부내용을 정립하고 역사의 흐름에 익숙해지기 위해 지원해주는 무료 온라인 강의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제가 어느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정확히 선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학원에서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그다음 대학 일자리센터의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기업정보와 일자리센터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신 검사를 통해 저에게 적합한 기업을 선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보는 공기업 속에 희망하는 회사를 7~8곳을 선별하여 그에 맞는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NCS와 사무직에 맞는 전공 경영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저는 사무직군을 희망했고 단일형의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회사보단 통합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회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도가 아닌 저는 전공 공부를 시작하기전 우리학교의 경영학 교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고 학원의 경영학에 대한 이론서와 문제지를 통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NCS는 PSAT형 문제집으로 접근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문제집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보는 것도 좋지만 취업 준비학원에서 문제 접근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신 게 생각이 나서 저는 2권의 문제집으로 각 영역별로 3회독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지 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2020 하반기 코레일 채용공고를 확인한 다음 저의 대외활동과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일자리센터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신 검사결과의 피드백을 조합해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 하시는데 저의 유형을 파악해준 검사지는 글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응시해도 좋다는 1차 합격의 결과를 확인 한 뒤, 필기시험 이론과 오답문제를 꾸준히 복습하다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두고 2주전부터는 필기시험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면서 문제를 풀고 점수를 파악하면서 시험 이틀 전까지 준비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러 갔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합격점수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점수로 불합격을 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며 확인해본 결과 전공인 경영학에 비해 NCS 부분의 공부가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NCS의 수리영역에서 시간분배를 조금 잘못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시험장이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여 오전 일찍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여 첫 부분에 위치한 NCS문제를 능숙하게 풀지 못한 점도 아쉽게 남아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지원 시 시험장의 거리가 먼 곳에 선정되면 그 전날 시험장 근처에 숙박하면서 마지막 정리 후 시험에 응시하러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보단 2권의 문제지로 3회독을 하고 시험에 응시하러 갔는데 조금 낯선 유형의 문제를 만나서 시간 안배를 조금 실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채용의 지원에 앞서 경영학 공부내용을 계속해서 복습하며 조금 더 많은 양의 NCS문제를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레일은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공기업인 만큼 지원자의 수가 굉장히 많고 쉽게 말해 고인물로 불리우는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 기업 중에 한곳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하면서 공기업 필기시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처음 접해보고 모의고사를 풀어볼 기회가 많이 부족했는데 NCS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대한상공회의소, 잡코리아, 그리고 우리학교의 인적성 검사 비교과 프로그램 등 준비되어 있는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학기는 제가 학점이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만큼 교수님들께서 많은 과제를 부여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취업준비를 계획보다 조금 부족하게 한 느낌이 있습니다. 학기와 병행하여 이런 기회를 접해 보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다음 채용 전까지 현장 시험과 동일하게 자주 모의고사를 응시하여 제가 어느 점을 보완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지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직 회화점수를 취득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공기업 중 회화점수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저는 오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며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픽 모의고사를 보면서 꾸준히 실력을 상승시켜 종강 하는 대로 오픽 시험에 응시하여 원하는 성적을 갖출 계획입니다. 저의 계획대로 회화시험의 점수까지 갖추면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유명 사기업들은 대부분 회화시험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제가 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점수가 마련 되는대로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사기업 취업준비도 병행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또한 자주변하는 취업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차적으로 제가 취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업학원과 지금처럼 대학일자리센터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상반기 채용을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하며 대학 일자리센터 조지영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어 저는 공기업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과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보았을 때 넓은 범위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일자리센터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선택의 폭을 좁히는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느 공기업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선생님께서는 조언을 해주셨으며 취업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과 참고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알려주셨고, 주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취업준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인적성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지만 프로그램 일정이 학기 개강 후까지 진행되어 시간표상 힘들어 지원하지 못한 점은 필기시험을 치룬 다음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여름방학에 직접 방문했을 때 저에게 각종 검사지와 상담을 진행해주셨는데 검사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가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글의 기반을 잡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는 면접과도 연결되는 부분임을 선생님께서는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기입했습니다. 글만으로 저를 어필해야 하는 서류항목은 이번을 작성 경험을 토대로 다음 상반기의 여러 회사를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공기업 선정과정에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잡알리오 사이트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에듀스 취업컨텐츠의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공기업은 회사마다 시험의 유형이 전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시험유형을 보는 회사를 선정 할 수 있는 점은 저에게 방대한 고민을 대폭 축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는 9월에 진행하는 면접클리닉을 통해 면접의 역량을 키우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자신을 어필 할 수 있는 30초에서 1분정도 되는 분량을 항상 숙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해주셨고, 저는 9월23일에 면접클리닉에 지원하면서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채용에서 면접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좋은 결과를 얻어 면접의 관문에 도달했을 때 자신감 있게 면접에 대응하도록 다음 면접클리닉에도 지원하여 꾸준히 실력을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공기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 상담을 받으러 찾아보았을 때 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으로 제가 다른 학우 분들에 비해 인턴의 경험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제가 희망하는 공기업의 인턴십 근무가 아니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필기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에 중시를 하고 준비했는데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인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이 갈수록 근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발하는 추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면접 시 근무경험의 유무는 합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계속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로 선생님께서는 꾸준히 저에게 인턴 정보에 관해서 전해주셨고, 저는 각종 정보들을 접해보면서 시기상 가능하다면 지원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턴이 어려울 경우 현직자선배들과 교류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교육이수사항 기재였습니다. 비 상경계열 전공자인 저는 몇 가지 경영학 교과목을 학교 수업을 통해 들었지만 본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저는 학원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상담선생님께서 저에게 워크넷 사이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고민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의 관문 앞에서 고민이 들 때 마다 의지 할 수 있는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는 상대적으로 취업준비를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 분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님들도 코로나의 여파로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하기 보단 준비 시점부터 성실하게 노력 하는 게 중요함을 저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시험에 대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틈틈이 공부하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은 학교의 대학일자리 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취업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기업 교육이수사항 기입에 관련된 질문은 취업전문 학원을 통해서 얻지 못했지만, 예상외로 답변을 저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많은 정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찾아보면서 꾸준히 상담과 관리를 통해 올바른 답을 찾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일자리센터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년별 맞춤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맞춤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취업준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선생님을 찾아보었지만 이른 시기부터 학업과 병행하여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면 생각보다 나의 숨은 능력과 적성에 어울리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을 갖고 계시지 말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하나씩 폭을 좁히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낯 설게 느끼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주위의 학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내가 작성한 자소서를 기반으로 취업 직군에 맞춰서 수정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도움을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업과 마찬가지로 취업준비도 사교육만이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절대 아닙니다. 많은 학원들은 일종의 비용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해주지만 대학일자리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처음 취업의 접근 과정부터 취업 성공하는 그 모든 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학우님들은 다가오는 이번 방학을 계기로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추시길 적극 추천 드립니다.

1. 유형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입공채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무	국토조사직
-----	--------------	----	-------

3. 합격자원

전공	정부행정학부	다전공 이수	심화전공(본전공)
해외경험	중학교 1학년 전라북도장학생 어학연수(호주), 대학교 1학년 인문학기행(유럽)		
자격증	한국사 1급, 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 GTQ 3급, 실무엑셀활용능력 2급(민간) 등		
인턴경험	산학연계현장실습(국토연구원, 8주), 국토연구원 연구보조(약 4개월)		
대외활동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서포터즈(우수상), 월드스마트시티위크 대국민토론회(스마트시티, 세종지역대표),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서포터즈(국토개발분야, 멘티팀장), 고려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		
동아리	총동아리연합회(중앙동아리들을 관리하는 학생회, 사무국장)		
수상경험	교내 표창장 2회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고려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및 CATCH 홈페이지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류	합격 기업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목표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국토 내지는 도시 분야로 진로를 설정했으며 학업과 대외활동, 인턴경험 또한 해당 분야로 채워넣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기는 3학년 여름방학 산학연계현장실습부터였고, 이후 틈틈이 대학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 참여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학기 중 고려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하계방학 산학연계현장실습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고, 기업목록을 살펴보던 중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실습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현장실습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이 끝난 이후에도 연이 닿아 4학년 2학기인 지금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제가 새내기였을 때 도시분야에 관심이 있던 선배에게서 권유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다루기도 하고 본사가 저의 본가에 위치해있어 지금까지 쪽 유념해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험삼아 3학년 때도 지원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원하는 직렬인 국토조사직은 뽑지 않아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보조로 근무하고 있던 7월 말경에 뒀습니다. 자소서 문항을 보니 2개는 작년 문항과 똑같았고 2개는 새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했던 2020 하계방학 온라인 취업동아리에서 작년 기준 문항들로 LX공사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 작성해보았기에 자기소개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기업에 제출하기 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선생님께 메일로 첨삭을 한 번 받고 진행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서류전형은 '경험 및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로 나뉘는데, '경험 및 경력기술서'에는 제목과 활동, 기간, 내용을 개조식으로 아래와 같이 간단간단하게 적었습니다.

*** 경험 ***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중 대국민 토론회 지역대표단]
- 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에 대한 토론
- 기간: 2018.08.30.(지역별 토론회), 2018.09.18.(대국민 토론회 Final 및 토크콘서트)
- 내용: 지역별 토론회에서 OO지역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통한 교통방안 개선에 대해 조별 대표로 PT발표 진행, 참여자들의 투표로 우수 발제자로 뽑혀 대국민 토론회 Final에 지역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

*** 경력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일용직 근무]
- 활동: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일용직(연구보조) 근무
- 기간: 2020.07.01.~2020.8.14.(서류전형 마감일)
- 내용: 8개 특별,광역시에 도시캐노피모수를 적용한 Quantity Map 추출, 임업통계연보 중 석재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조사 및 추세선 작성, 보고서 작성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행사명이나 주최기관명, 지역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기관마다 블라인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채용 페이지의 문의하거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기업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서류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읽고 어떤 소재가 어떤 문항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내야 하는데 아직 취업준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경험정리를 먼저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의 데이터가 쌓여있으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저 또한 이전에 진로마블과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험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고집어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었던 회사선택 기준과 적합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관심분야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작성하였고, 두 번째 항목이었던 성취사례를 묻는 문항에서는 국토조사직을 수행하는데도 있을법한 국토연구원에서의 사례를 들어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끝마친 경험을 적어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신입사원의 필요역량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어 신입이라면

가져야할 적극적인 자세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고, 네 번째 항목은 향후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인 GIS에 대한 공부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아카데미를 들어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채용공고가 난 시기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터라 공부할 시간이 크게 부족했기도 하거니와 8월 말경 급격한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주일 앞두고 있던 필기시험이 정확한 날짜 없이 9월 말 이후 재공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존의 페이스를 잃었던 것이 큰 것 같습니다. 9월 중순 갑자기 추석 이전에 필기 시험을 본다는 공지를 보고 다시 2주간 공부량을 늘려 준비했지만 4개의 NCS 영역과 3개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전에 필기시험 경험도 없던 터라 타지에서 진행했던 첫 전공, 첫 NCS 시험이 긴장되기도 하였고 시험장이 교통이 불편했던 곳이라 찾아가는데 기력을 소진했던 탓도 살짝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도 채용에서는 NCS 스터디와 함께 전공공부를 보다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NCS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는 만큼 매주 NCS 문제를 풀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풀이법에 대해 서로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즘 모듈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공 세 과목과 NCS 모듈 이론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약 6개월 동안 지식을 최대한 쌓은 후 다음 년도 채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4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학일자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의미가 컸던 프로그램은 '산학연계현장실습'이었습니다. 산학연계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일을 해봄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이 대학일자리센터의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진로마블' 또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로마블은 딱딱할 것만 같았던 진로·취업을 보드게임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프로그램이었는데, 게임 이전에 있었던 경험정리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탐색 활동이었으며 게임을 하면서 카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은 면접 질문을 예상하고 답해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취업동아리' 활동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의 채용심사 경험이 있으신 멘토님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멘티들이 서로의 경험정리, 자기소개서 등을 피드백해주고 마지막 시간엔 PT 면접과 롤플레이팅 면접까지 여름방학동안 4주간의 짧고 굵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먼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내야될 때가 오면 '나는 4년동안 뭐했지..?'하며 막막해합니다. 특히 경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학년 때부터 이것저것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분야가 쪽 이어지는게 BEST긴 하지만) 당장의 진로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활동실적을 만들어놓으면 고학년이 되고나서 인턴이나 대외활동에 저학년 때 활동한

것들을 양분삼아 경험으로 쓸 수 있거든요. 대외활동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 했던 대외활동을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력직 신입을 뽑는 기분..? 그러니 1~2학년에 공모전이든 대외활동이든 마구마구 도전해보세요.

3달이라는 짧은 취업 준비를 경험한 결과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보입니다. 취업 준비는 고학년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기업이나 공채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NCS나 PSAT 등의 시험을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에서 멀어질수록 문제푸는 감이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의 경우 대학일자리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컨설턴트 선생님의 첨삭 외에도 특강이나 진로마블, 취업동아리 등의 센터 프로그램이 하는 당시에는 귀찮고 생각이 안날 수 있지만, 경험정리든 자소서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다른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한국투자증권	직무	지점영업
-----	--------	----	------

3. 합격자원

전공	경영학부	대전공 이수	심화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3.1 / 4.5점	합격시 연령	28세
어학점수(토익, 토플)		회화점수(토스, 오픽)	오픽 IH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인턴경험	2020 한국투자증권 채용연계형 하계 인턴		
대외활동	한국투자증권 금융인재아카데미		
동아리	전국투자동아리연합회		
수상경험	고려대학교 기업분석경진대회		
외부교육	AFPK 교육이수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독금사, KKB, 고파스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유진증권
서류	합격 기업명	한국투자증권, 유진증권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한국투자증권, 유진증권
면접	불합격 기업명	유진증권
	합격 기업명	한국투자증권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2학년 때 교내 경영학부 비교과 프로그램인 '글로벌 우량기업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 스테디' 활동을 하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증권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투자동아리연합회'를 통해 네트워킹 및 증권사 취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관련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기업 분석과 뉴스 스크랩 및 투자보고서 작성, 서평과 강연회 후기 등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 관련 활동을 이어오면서 취업 특전이 있는 대외활동인 '한국투자증권 금융인재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고, 합격하여 4개월간 증권사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0명 중 8명이 우수 수료자로 선정되었으며, 채용전제형 인턴십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 수료자 중 5명이 하계 인턴십을 진행하였고 우수 인턴 수료자 4명이 최종면접 후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통한 전문지식과 뉴스 스크랩을 통한 이슈 체크 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꾸준히 실천 투자를 이어오면서 주식투자를 이론으로만 학습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 것이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제가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직무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은 투자 블로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간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며 관련 활동을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운영을 통해 증권업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련 현직자들과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활동, 자소서, 면접에서도 해당 내용은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었고 해당 직무에 대한 열정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카테고리는 크게 5개로 나뉩니다. 투자노트, 기업분석, 뉴스 스크랩, 서평, 강연 및 포럼입니다. 특히 '뉴스 스크랩' 활동은 직무 관련 지식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주요 기사를 스크랩 후 요약과 생각을 정리하여 투자포인트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1년간 약 200개의 에세이를 작성하였고, 대외활동과 면접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을 하며 '삼프로TV_신과함께', 'SBS스페셜_코로나생존전략' 등에 대학생 투자자로 출연하여 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세차례 참여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인 '2020하계방학 온오프취업동아리', '언니들의 JOB담'과 교과목인 '성공취업전략'입니다. 취업동아리를 진행하며 자기소개서 작성법, 기업분석, 모의면접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실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면접 전 강사님과 진행했던 1대1 면접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합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니들의 JOB담에서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현직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원 회사의 희망 직무 현직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답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공취업전략 수업 진행과 함께 최종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않고 취업 전반에 걸친 질문을 받고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적극적으로 교내 취업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최종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후배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자신이 원하는 직종 및 직무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험 및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나간다면 지원 과정에서 자신만의 큰 무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 시즌이 되면 단기간에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기업 및 직무에 대한 관련 경험은 부족할 것이고 서류 통과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방향에 맞춰 준비해온 취업 준비생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조금씩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만약 증권업에 관심이 있다면 직무 분석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에는 매우 다양한 직무가 있으며 모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성향이 부합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후배들이 증권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다양한 직무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ASML	직무	Field Service Engineer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 및 정보공학과	대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41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 토플)		회화점수(토스, 오픽)	오픽(IM2)
인턴경험	20년 여름방학 현장실습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2개월 간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축구 동아리(전축), 프로그래밍 동아리(쿠하스)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ASML, 램리서치, KLA		
서류	합격 기업명	ASML, 램리서치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우선 준비전략으로는 같은 과 선배님 중 최종 합격하셨던 선배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ASML은 자율형식 자소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소서 안에서도 항목을 나눠서 쓰는 것이 중요하고 눈여겨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ASML을 지원했는지, FSE 직무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SML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꿈으로 3가지 항목을 나눠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ASML의 기술력에 관한 관심 위주로 작성했고 역량 부분에서는 FSE에 도움이 될만한 경험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ASML은 외국계 회사로 가끔 외국인이 자소서를 확인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영문자소서와 영문이력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한글로 작성한 자소서의 내용이 포함되는 선에서 문법에 이상만 없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ASML 입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 회사 특성상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도 ASML의 대표적인 기술인 Lithography 공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으며 엑셀 VBA 코딩을 이용한 Lithography 공정 simulation도 해봄으로써 ASML 자소서에 저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저는 ASML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AI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선 AI 면접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 AI 면접을 봤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했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지 조사한 후에 AI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합격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면접은 질문을 통한 인성과 여러 가지의 게임을 통한 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성 검사에서 일관성 있게 대답하지 못해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솔직한 제 생각대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의 답을 찾아서 대답했기 때문에 후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일관성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완한다면 다음 공채에 지원해도 AI 면접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한 영어 실력을 키워서 다음 단계인 영어테스트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제가 ASML 자소서를 쓰면서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 첫 번째는 방학 때 했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사를 졸업하기 전에 인턴 공채를 통해서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소서 경력 사항을 비워놓지 않고 하나라도 추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직업 선택과 취업 가이드 교양 수업을 수강했었는데 이 수업에서 합격 자소서 사례를 분석해주고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비교해주었던 것과 면접 준비 그리고 면접 태도 등을 배우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직장 생활 중인 선배와 멘토 멘티 관계로 연결해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ASML을 지원했던 FSE 직무도 이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멘토 선배가 추천해줬던 직무였고 편한 분위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21년 졸업 예정인 전자 및 정보공학과 15학번 학우입니다. 저도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4학년이 되보고 처음 공채에 지원해보면서 취업 문턱이 높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 상황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 및 정보공학과 학생이라면 열심히 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직장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4학년이 아닌 후배들에게는 두 가지를 꼭 준비했다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적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지만 다른 회사들도 인적성시험을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가와서 준비하려고 하면 항상 늦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지만, 후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꼭 미리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다 같이 좋은 회사로 취업할 때까지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BGF리테일	직무	영업관리
-----	--------	----	------

3. 합격자원

전공	글로벌경영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4.13 / 4.5점	합격시 연령	27세
어학점수(토익,토플)	없음	회화점수(토스,오픽)	토스140점
자격증	유통관리사2급		
대외활동	조치원 도시재생 서포터즈		
동아리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 고불당		
수상경험	교내 표창장 외 없음		
외부교육	마케팅 데이터 분석사2급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자소설닷컴, 교내 프로그램(교우 멘토링)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BGF리테일, 사조원, 쿠팡풀필먼트, SPC파리크라상, NHN, 현대L&C, 영림
서류	합격 기업명	BGF리테일, 사조원, 쿠팡풀필먼트
면접	불합격 기업명	쿠팡풀필먼트, 사조원
	합격 기업명	영림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취업준비를 일단 제 자신을 먼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력사항과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었기에 어학과 대외활동 부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영업직무에 관심이 있었기에 관련 대외활동인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대외활동 중 입상을 하진 못하였지만 주민평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이후 자소서 사례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어학은 오랜 시간 영어와 거리를 둔 생활을 해왔기에 단기간에 성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의 조언을 통해 토익 스피킹으로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지만 스펙적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기에 저는 전략으로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경험사례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제가 가진 경험들이 모두 영업/마케팅관련 경험들이라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소서에 표현하였습니다.

면접에서 전공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최종합격의 결과는 얻지 못하였지만 보완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2번의 불합격(쿠팡필드먼트는 면접불참)에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Ai면접에 대한 정보부족이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에 Ai면접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합격이후 준비하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류제출 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Ai면접의 경우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뒤늦게 교우 멘토링을 통해 알게 된 선배님의 도움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제휴된 사이트가 있어 Ai면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류합격 이후 채용프로세스 과정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면접을 진행했던 '사조원'은 사조그룹이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 확장 중인 기업입니다. 평소 준비하는 산업군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이었기에 육가공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면접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면접 당시에 같은 조에 경영학과 학생이 저 혼자여서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전공지식을 해당직무와 연관시켜 대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업이 경영학과 학부생에게 원하는 수준의 지식을 면접 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26살 편입생이라서 나이에 대한 부담이 심해 편입 후 바로 방문하였던 곳이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제가 가진 정량적 스펙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 2년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교우 멘토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원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직자 입장에서의 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강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멘토분은 취업을 하신지 1년정도 되신 분이어서 최근 취업 트렌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토익점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학은 토스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19년도 하반기 멘토링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 20년도 상반기 멘토링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하려는 직무 및 산업군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5년 경력의 멘토분을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직무와 실제 영업직무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직무 고충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우 멘토링은 원하는 산업군과 직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잘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취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3학년부턴 시작했지만 실행으로 옮긴 것들이 적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후배님들은 원하는 기업의 서류작성을 미리 한번 연습하며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고 어떠한 항목을 더 채워야할지 미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아쉬웠던 부분은 경험사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소서를 통해 지원자의 경험사례를 요구합니다. 보통 3~4개의 항목이 있는데 500~700자의 경우 한 개의 사례를 작성하면 되지만 800~1500자 제한이라면 한 가지 항목에 두 개의 사례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6개 정도의 경험사례가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외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사례를 만들고 미리 준비하면 자소서 작성 시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진 못하였지만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후배님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형

1	■ 인턴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IT조선	직무	취재기자
-----	------	----	------

3. 합격자원

전공	경제학과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4.07 / 4.5점	합격시 연령	만 27세
대외활동	한국 투명성 기구 IM 기자단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 DB GAPS 본선진출		
동아리	글로벌 우량기업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 스터디(경영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미디어잡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연합뉴스, IT조선		
서류	합격 기업명	IT 조선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p>IT조선을 겨냥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이번 IT조선의 인턴기자 채용의 경우, 서류 후 바로 면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공고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와 같은 뉴미디어 매체로의 확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올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면접은 3명의 지원자가 함께 보았고,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p> <p>자기소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쓰시오(500자 이내) 자신의 장단점(500자 이내)

3. 직무 관련 활동(500자 이내)

4. 영상기획(제한없음)

5. 지원동기 및 입사포부(300자 이내)

- 저는 주로 한국 투명성 기구 산하단체인 IM에서 기자단 활동을 하며 취재한 경험과 경영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NC소프트와 SK하이닉스 IR담당자와 대면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경험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프로그램 기획을 하였습니다.

면접 질문

1) 새로 옮긴 사무실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2) 기사를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3) 왜 IT 조선을 선택했는지?

4) 어떤 취재파트를 맡고 싶은지?

5) 외신을 리서치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인데 구독하고 있는 매체가 있는지? 기사화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6)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7)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있는가?

8) 인상 깊게 본 IT조선의 기사가 있는가?

9) 기자의 특성상 업무가 힘들 수 있는데 괜찮은지?

- 저는 일단, 국내 배터리 산업 인력 이탈에 대해 다룬 기사를 인상 깊게 봤다고 답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지하철에서 본 것인데요. 경제학 세미나라는 수업에서 박번순 교수님이 국내 반도체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신 것이 생각나 연관 지어 이야기했습니다. 맡고 싶은 파트는 배터리 분야로 하였는데, 기존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관심이 있어서 리튬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그래핀 배터리, ESS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답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을 영문 버전으로 구독하고 있었고, 블룸버그의 경우 실시간 알림을 받고 있어서 외신에 대한 질문에 이를 밝혔습니다.

학년별 활동내역

1~2학년에는 경영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NC소프트와 SK하이닉스 IR담당자를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업 IR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다.

3학년에는 한국 투명성 기구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었고, 외부 장학생으로 뽑혀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에는 기자단 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B GAPS 투자대회에 나가서 본선 진출을 하였으나, 수상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제가 꿈은 불합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에서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사무실을 본 느낌은 어떤지 묻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하철에서 생방송을 시킨다면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처가 부족했습니다.

2. 실질적으로 기사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부족했습니다.

타 면접자의 경우, 기자로 일을 해본 사람도 있었으며, 저널리즘 스쿨을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꼭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글을 쓴 이력과 기사를 써보거나 취재를 해본 경험은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다방면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완성된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람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족하더라도 지원하여 얻는 바가 있었습니다.

보완계획은 2021년 상반기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기적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하나씩 번역하고 기사화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작문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글을 매주 1편 이상을 쓰는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3. 토익 성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4. 본격적인 언론사 시험을 위해 상식 등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취업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제 경우에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았을 때, 꾸준히 글을 쓰고 그것을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피드백이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있는지, 기사를 작성해본 경험이나 취재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뛰어나다면 좋지만,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강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 혹은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다면 '진로 탐색 및 리더십 개발'이라는 수업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수강하여 전반적인 취업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제 경우에는 막연히 로스쿨, 언론사 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해 배우니,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 중인 문과 학생이라면 꿈이나 목표가 당장 없더라도 학점을 챙기고, 주기적으로 독서를 하고, 흥미가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한다면 발걸음이 모여 하나의 길을 가리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렇다 보니 휴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졸업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들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원래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연초에 예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나날을 보내는 것이 힘이 들지만요.

사실 후배님들께 남기는 말이라고 하면 응당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 감히 조언해보았습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모두 잘 되었으면 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KLA, ASML	직무	Customer Support Engineer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및정보공학과	다전공 이수	x
합격시 평균학점	3.79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토플)	x	회화점수(토스,오픽)	IH(오픽)
인턴경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장실습		
동아리	축구, 코딩 동아리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정보, 기업 홈페이지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 ASML, KLA
서류	합격 기업명	ASML, KLA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KLA
면접	불합격 기업명	KLA (1차 실무면접까지 합격, 최종 면접 불합)
	합격 기업명	x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Customer Support Engineer라는 직무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서류 합격에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Customer Support Engineer의 경우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이다 보니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중점을 맞추어 자소서를 작성했고,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있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 체력적인 우수함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또, ASML의 경우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힘들어 퇴사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듣고 군 시절 얘기를 통해 교대 근무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에 대한 어필을 했습니다.

KLA의 경우는 검사 계측 단계에 독점기업이고, 최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계를 개발하는 등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부시절 들었던 인공지능망 수업과 현장실습 시 진행했던 예측모델 개발 등의 얘기를 통해 딥러닝에 흥미가 있고 이를 활용한 경험 등을 어필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ASML의 경우 AI 면접에서 불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부족한 사전조사와 장비세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면접의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표정변화를 시가 체크하고, 후반 게임을 할 때에 게임의 결과보다 도박성과 같은 성향을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또,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노트북 내장 카메라가 하단부에 있어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찍게 되었고 이에 의해 표정 변화에 대한 AI의 인식에 불이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LA의 경우 최종 임원면접에서 불합했습니다. ZOOM을 이용한 화상 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최초 한 명의 임원분만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ZOOM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 중간중간 한 분씩 들어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과 나중에 들어오신 분의 질문이 겹치는 등 면접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당시에는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내 장점을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임원면접의 경우 인성을 주로 보는데 너무 강점만 어필하려고 오버하다보니 불합했던 것 같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경력개발센터에서 작년 받았던 상담이 도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 어떤 기업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알아보면 좋은 기업 리스트도 뽑아 주셔서 사전조사 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좋았던 프로그램으로는 현직자 멘토링과, 튜터링이 좋았습니다. 튜터링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프로그램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현직자 멘토링이었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에게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제 현직자가 겪는 어려움, 또 현직에 계시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역량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자소서 작성과 면접에서 큰 이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프로그램은 면접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려다 보니 부담감이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면접 스터디 등을 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도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최종 합격이 아닌 1차 면접 합격 밖에 하지 못해서 조언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하여 적어보면,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직자 멘토링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이 없다고 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이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최종 임원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크게 실망했지만, 이런 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경험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 많아 영어 회화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픽 성적은 IH 이상 받아놓아야 편하고, 영어 면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 회화 실력을 기르셔야 편합니다. 현직자 멘토링에서는 합격 자소서 파일을 받으면 좋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고려대학교	직무	e-learning 지원
-----	-------	----	---------------

3. 합격자원

전공	경영학부	다전공 이수	빅데이터
합격시 평균학점	3.6 / 4.5점	합격시 연령	24세
대외활동	서포터즈: ChattingCat, Coca-Cola, PLATINUM, 한복모델선발대회, FIFA U-20, 오뚜기		
동아리	교내 마케팅 학술동아리, 천체관측동아리, 고려대학교 세종 사회봉사단 12기		
수상경험	아너스 아이디어톤(최우수), RC멘토(우수, 최우수), RC창업경진대회(2위), 성적우수상, 독서PT(참가), 스터디그룹(장려), 캡스톤(장려)		
외부교육	엑셀, PPT, R 특강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portal, 스펙업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고려대학교		
서류	합격 기업명	고려대학교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취업전략

저는 기업 지원을 할 때 선정 기준이 '내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 였습니다. 이번 기업에 지원하게 된 이유도 해당 업무가 남들이 겪어보기 힘든 일이고 제가 맡아왔던 업무여서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합격권에는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년별 활동내용

또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게 합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전공인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 쪽으로 갈 생각이었기에 대외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여러 서포터즈를 하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고, 그 결과 카드뉴스, PPT 제작 능력이 월등하게 올랐습니다. 2,3학년 때까지 교내 대회, 대외활동을 하면서 스펙을 쌓았었습니다. 4학년 때는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활동, 대회 준비를 하는 대신 학업과 취준에만 시간을 썼습니다. 공통된 점은 1학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일자리센터의 특강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습득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4년간의 활동내용들을 정리해놔서 필요할 때 마다 찾기 쉽게 수월하게 했습니다.

단계별 준비내용

1. 정보검색 - 하나의 종합 채용사이트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채용 같은 경우도, 일부 사이트에서만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고, 이를 아는 사람이 적어 경쟁률이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채용사이트 외에도 네이버카페, 오픈채팅, 밴드 등을 통해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니 여러 채널에 가입해서 항상 새로운 소식을 수집했습니다. 서류, 면접 준비는 지원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2. 서류전형 - 서류는 제가 지금까지 활동 했던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활동내용과 핵심역량을 적어놔기 때문에 이번 자소서 있는 문항에 맞추어 골라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작성한 자소서 템플릿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질문은 템플릿에서 가져다 적었습니다. 지원동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직무 경험을 어필하여 작성했습니다.
3. 면접전형 - 면접 전엔 서류에 적은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해당 직무 경험이 있다고 적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여 제가 업무 기간 동안 다뤘던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며 예상 질문해 대비했습니다.
4. 면접질문 - 면접 질문은 이전 직무 경험과 상황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했던 직무에서 다뤄본 프로그램에 관해 물어봤었고, 직무에서 맡았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상황 면접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주어주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확인하셨습니다. 다행히 다 경험이 있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전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관련 직무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6개월 간 일하면서 온라인 강의 지원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직무도 근로장학생 때 했던 일과 유사했기 때문에 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서류에서 어필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직무 경험을 엮어 말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는 '문의 사항 응대를 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알바 경험을 말하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동아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활동과 핵심역량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외활동,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팀플에서도 핵심역량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배운 점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기업의 문항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었습니다.

즉, 남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1. 교우멘토링

해당 프로그램은 모교 졸업생 선배와 매칭을 해주어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님이 현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가 돌아가는 현실이나 준비한 자격증, 스펙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쓴 자소서를 현직자 멘토님께서 직접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기 전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됐는데 진로 결정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 취업동아리

취업동아리는 같은 직군의 소규모(10명) 인원이 모인 취업 멘토링 모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 내가 해도 되나 고민이 들었지만, 상담사 분께서 추천해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신청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실력을 키워줬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도 처음 써보고 면접도 진행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나와 목표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직무를 바탕으로 그룹을 정했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정보공유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현재 나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취업동아리에 관심이 있는 분은 4-1학기에 지원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막 학기가 아닌 4-1학기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수정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마 이 대회에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학교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경력개발센터/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게 학년, 전공, 단계 별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어서 현재 본인이 어떤 상태이든지 각자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강제로 공부 환경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자소서 일정만 메모해놓고 과제, 시험 준비하느라 지원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2,3학년이면 더욱 자소서, 포트폴리오 등 취업 준비는 우선순위에 밀릴 것입니다. 그러니 스터디,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취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교우멘토링 중, 멘토님이 자소서 작성 과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팀플, 과제도 많은데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냐고 생각했지만, 그때 시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자소서 작성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리 바빠도 잉여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당장의 휴식을 위해 날리기보단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위에 말한 것처럼 스터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강제로 그 상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번 합격과는 관련 없었지만 제가 후회했던 점을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어보여도 지속적으로 기록하다보면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우멘토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빅솔, 퀘스처너스	직무	기획, 영업
-----	-----------	----	--------

3. 합격자원

전공	공공행정학부	대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02 / 4.5점	합격시 연령	26 세
자격증	운전면허2종		
수상경험	창업경시대회 최우수상 및 우수상 6회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무신사, 발란, 강남언니, 엔피프틴, 와디즈, 아만다, 빅솔, 백두테크놀로지스, 직방, KST Mobility, 테오아, 카닥, 샌드박스, 여기어때, 화해, 야놀자, 생활연구소, 당근마켓, 말랑, 에임, 숨고, 와이즐리, 마이리얼트립, 위밋
서류	합격 기업명	빅솔, 백두테크놀로지스, KST Mobility, 테오아 퀘스처너스, 위밋, gobox
면접	불합격 기업명	KST Mobility, 테오아
	합격 기업명	빅솔, 백두테크놀로지스, 퀘스처너스, 위밋, gobox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전역 후 2016년부터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다가올 때 친한 형과 스타트업에 시작하였고, 수상경력등을 쌓아가며, 창업에만 관심이 있을 2018년 2019년 취업센터에서 취업관련 특강을 들으며, 막연하게 취업이 정말 저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번의 스타트업을 도전한 후 창업에 대한 벽을 느껴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취업에 뛰어들어서 몸소 체험해 본 결과 어마어마한 벽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 스펙만을 믿고 회사에서 뽑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미

취업을 한 선배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어떻게 취업하였는지 물어보고 자기소개서를 보내며 피드백을 받아 계속하여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서류 통과 한 2곳의 기업에 면접을 갔는데 정작 면접에서의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철저하게 서류 면접이 붙으면 그 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장 처음 질문이었던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하나씩의 예상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 저에게는 꿈이 뭐냐 와 장점과 단점이 뭐냐 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길이라 생각하였고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 꿈보다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한 걸음 앞만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솔직함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셨고, 직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은 신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빅솔이라는 회사에 처음 취직하게 되었고, 3주간의 일을 한 후 사업자가 있어 월급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퀘스처너스에서 똑같이 솔직함을 어필하여 퇴직 1주일만에 다시 취직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면접자 분들이 자신이보다 잘 보이기 위해 거짓을 보태서 혹은 과장해서 많이 면접을 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포장하는 것과 거짓말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점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열하여 썼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서류통과 답이 오지 않았고, 자기소개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써서 남에게 말기는 자기소개서들이 많다는 생각에 제 스타일의 글에 다른 분들의 합격요인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주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고, 저는 스타트업을 했던 경험을 위주로 도전-실패-실패요인-배운점을 위주로 써 내려갔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바꿔 지원하자 1~3곳 정도에서 연락이 왔고 2곳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단순히 회사 정보만을 보고 가자 다른 지원자들이 준비해 온 것에 터무니 없이 부족했고, 당연히 면접은 떨어졌습니다. 나만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생각했고,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스타트업을 해봤다는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그 후에 붙은 회사들의 어플에 대해 계속하여 연구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설문을 하여 해당 어플에 대해 대학생이 쓴다면 어떤 이유에서 쓸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 안 쓸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 갔고, 스스로 내가 대표라면 이 어플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바꿀 것이며 나라면 이런 수익모델을 추가하여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준비해 갔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자 그 후로 준비한 5개의 회사 모두 면접에 성공하였습니다.

빅솔과는 조건 차이로 작별하였지만, 더 큰 회사인 퀘스처너스에 마찬가지로 준비해갔고 작별 후 1주일 만에 바로 취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신입에게 일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신입이라도 경력 20년차 30년차 분들의 능력에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문과 분석을 한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뿐인 열정이 가득합니다가 아닌 실제 열정을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함 그리고 열정으로 면접을 봤고 이 두 가지가 입사에 성공하는 좋은 무기였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세종경력센터에서 해외취업환경 설명회 그리고 글로벌일자리대전 마지막으로 과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던 교우초청 특강 및 취업 멘토링 잡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1학년, 2학년일 때 막연하게 졸업하면 취업이 되겠지 라는 생각과 당장 내가 뭘 해야할지 몰라서 매일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놀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우연하게 들은 뒤로 취업의 벽이 상당히 높구나 와 이렇게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탄탄히 준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성공한 분들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강을 듣기 전에는 남들 다 하는 학점관리,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딸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회사 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IT 스타트업 회사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면접 때 단순히 이 사람이 자신의 역할만을 하는 것보다 정확히 사업을 이해하고 계속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며 끈끈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많이 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창업을 직접 해보고 겪으며 생각을 깊고 넓게 만들어 갔습니다. 창업과 취업은 다르지만 취업을 위한 창업의 경험은 다른 무엇보다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취업 준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취업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느 세종경력개발센터 특강이 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사실 이번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 꿈, 내 장점, 내 단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면 정말 쉽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업을 하며 나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본 것 같고, 인턴 등의 실무체험을 통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모두 좋은 직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좋은 기업은 뭘까 단순히 복지가 좋다면 나는 그 회사에 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봉만 높다면 나는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저 하루 8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근을 한다면 하루에 9~10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모두 합한다면 11시간 정도를 회사를 위해 보냅니다. 일주일이면 55시간을 회사에 연관된 시간으로 보냅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직장동료입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을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만을 추구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계열,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빠르게 깨닫는다면 그에 맞춰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회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되는지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친한 후배들을 보며 단순히 공무원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공부면 응원하고 밥이라도 사줘야 하지만 단순히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남들이 다 공무원 준비하니까 본인도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저는 최소한 공무원을 준비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이라도 발로 뛰며 찾아보는 것은 본인을 위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생산관리
-----	------	----	------

3. 합격자원

전공	국가통계전공	다전공 이수	산업경영공학부 (이중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3.82 / 4.5점	합격시 연령	23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715점	회화점수(토스,오픽)	토익스피킹 lv6
해외경험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활동		
자격증	SAS Certified Base Programmer for SAS 9, 6시그마 GreenBelt		
대외활동	37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동아리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KUCC(고려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잡코리아, 자소서닷컴, 독취사, 사람인, 스펙업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주 전공은 국가통계전공이었지만, 실제 산업에 접목하려면 공학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학년 2학기에 산업경영공학부로 이중전공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계와 산업공학을 접목할 수 있는 진로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되면서, 슬슬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다양한 취업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채용공고가 떴었고, 저의 학과와 맞는 생산관리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고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함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학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배웠던 점 혹은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업 유튜브 영상과 합격 자소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나의 이야기를 추상적이지 않게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알기 쉽도록 흔히들 이야기하는 "STAR" 기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STAR :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저는 인적성에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인적성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곤 했었지만, 처음 취업에 도전하다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류 발표가 나고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었고, 저는 학점과 인적성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과 공부와 인적성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힘든 3주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적성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공부량과 스킬의 부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적성 문제는 시간이 오래 주어진다면 다들 해결해 낼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하면서 한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 뒤에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적성이 치러지다 보니 자료 해석과 같은 도표 부분에서도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인적성 공부와 더불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습득하고 시간 조절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막학기의 도전이 학과 공부와 병행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분명히 이 경험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저는 6시그마 greenbelt 자격증 특강을 들었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학과에서 품질 공학 및 통계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6시그마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전반적인 품질관리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강사님께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재밌게 특강을 이끌어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는 실습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Minitab(통계 패키지)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이론에 관한 내용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수업도 매우 의미 있었지만, 더불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론적 교육만이 아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주셔서 나중에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 학기가 끝나면 꼭 자신이 활동했던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한 학기가 끝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나 노트북에 저장해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때서야 내가 경험했던 활동과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찾는다면 다 잊어버려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조금이라도 적어놓는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아 그때 뭐했지? 하고 다시 찾아보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또한, 인적성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꼭!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나중에 서류 합격이 나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늦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서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자격증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 다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시다. 화이팅!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공정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및정보공학	다전공 이수	심화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4.03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토플)	TOEIC-955	회화점수(토스,오픽)	OPIC-AL
해외경험	해외(미국) 2년 거주경험		
대외활동	학부연구생 활동(9개월), 창업 300 공모전(1차 예선심사 통과)		
동아리	영어학술동아리 E.T.W. TIME 활동		
수상경험	학과성적우수상(2015-1, 2018-1, 2020-1)		
외부교육	SEMI 반도체공정기술교육 2020 중급과정 이수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독취사(네이버 카페), 취업관련 유튜브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LG 디스플레이(산학장학생), 삼성전자(3급신입공채)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학부 때의 모습을 기억해보자면 취업전략을 따로 준비하였다기보다는 매 학년 하나의 주제를 결정하고 학교를 다녔었다. 학년별로 나열하자면, 2학년 - 진로, 적성탐색, 3학년 - 직무결정, 4학년 - 성과달성, 이러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2학년 - 진로, 적성탐색

처음으로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이기에 한계점이 많았다. 공모전이나 외부활동보다는 학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내 강점과목을 찾으려 노력했었다. 방학 때는 학점을 미리 채운다는 명목으로, 추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절 학기를 매번 신청했었다.

3학년 - 직무결정

이제 필수보다는 선택해야하는 전공과목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2학년 때의 성적과 수업경험을 토대로 가장 흥미, 자신 있는 전공 선택 과목위주로 시간표를 구성하였다. 공대 특성상 학점도 스펙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학과 공부를 최우선으로 투자하였다. 그래서 학기 중엔 스케줄을 많이 잡아먹을 큰 프로젝트나 공모전보다는 성적에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학과 주제 소규모 활동(스터디 그룹) 위주로 참여했었다. 방학시즌에는 본격적으로 외부활동을 찾아다녔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취업행사(인 하우스, 견학, 취업 콘서트 등등)를 알아보고 지원하면서 여러 공모전도 참여해보았다. 또한 토익, 오픽같은 필수 지원요건들도 같이 방학기간에 쌓아올렸다. 마지막으로, 학부연구생활을 진행하면서 내 희망 직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더불어 이에 관련 역량들을 배양할 수 있었다.(연구직을 희망하는 학우라면 적극 추천)

4학년 - 성과달성

희망직무에 대한 스펙마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를 봐야할 시기이다. 1학기 삼전 인턴ships을 지원하였으나 낙방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의 대외활동이 취소되었다. 그렇기에 참여 가능한 활동은 최대한 지원하여 보았다.(학교 교우멘토링, 대학원 여름인턴, SEMI 반도체 공정교육 등) 비록 4학년 때 계획하였던 스펙들은 다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반기 공채, 대학원 모집을 최대한 준비하면서 버텼다. 그 결과, 1지망으로 생각했었던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삼전 서류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서두에 미리 말하자면, 내 불합격 원인은 헤이해진 마음가짐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피로로 인한 한심한 이유가 아니었다. 사실 나는 대학원으로 이미 정해놓은 진로가 있었고, 타 대학원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 인적성고사 준비를 안했기 때문이다.

준비를 안했어도 온라인 gsat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 시험을 응시하였다. 실제 gast를 풀면서 느낀 점은 문제 난이도가 낮았다는 점이었다. 취준생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보통 gsat의 인적성 문제 난이도는 보통 상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제고사에서는 중, 하 수준의 문제들만 출시되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인해 gsat의 난이도는 내려갔다는 좋은 소식인걸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이번에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통과한다는 암울한 의미이다. 아마 다음 상반기 공채에서도 온라인 gsat를

진행할 예정이 높는데, 혹시 응시할 기회가 있는 학우들에게 온라인 gsat 준비는 완벽에 가까운 준비를 하여야한다는 당부사항을 꼭 전하고 싶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 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2학년 2학기부터 여러 활동들을 접했지만 교우멘토링, 그리고 자소서 첨삭, 이 두개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

첫 번째인 교우멘토링 프로그램이란, 우리 세종캠에서 졸업한 선배들에게 직접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취준생, 예비 취준생 학우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멘토는 나와 유사한 주변 환경들을 활용해 원하는 직무에 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우리 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혹은 우리 학교이기에 받는 냉정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멘토들은 이 두 가지를 최적으로 조율한 사람들이기에 지원자에게 가장 걸맞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인 자소서 첨삭을 통해 자기소개서라는 특수한 글쓰기 방법에 적응할 수 있었다. 특수하다고 느낀 이유는 자소서에는 일반 글쓰기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독자에게 그 내용을 어필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자기소개서 글쓰기에서는 실속 없는 문장 금지, 그리고 확실하게 성과를 서술할 수 있는 경험만을 나열해야한다는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 위 교훈들을 활용하여 작성한 자기소개서로 인해 삼성전자 서류통과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합격요인은 바로 홀로 진로고민을 하지 않았던 점이다.

2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말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의 교수님들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추가적으로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진로관련 활동들도, 관심분야와 연관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였다. 위 경험들을 통해, 나는 비교적 손쉽게 내 희망직무가 요구하는 수준과 스펙과 같은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다음 학기 수업 스케줄이나 대외활동들을 계획하였고, 결과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역량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시간낭비없이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어떤 학우들은 교수님들과의 면담이 부담스럽거나, 세종경력개발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나 자신도 처음 진로고민을 털어놓았을 땐 어색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모르는데 어찌 매끄럽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상담도 여타 다른 활동과 같이 계속하다보면 숙련된다. 내가 진정 어느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은지, 멘토가 어떠한 내용을 나에게 전달하는지를 점차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는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담내용을 적극활 용하여 다음 학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들을 계획해보자.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직무에 대한 핵심역량들이 준비되었음을 최대한 자소서에 어필하자. 실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취업시장에는 경쟁해야할 강자들이 너무 많다. 절대 나 홀로 해결하려 하지말것.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공정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및정보공학과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47 / 4.5점	합격시 연령	23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40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IM2
인턴경험	학과연계 현장실습 - 충북테크노파크 - 차세대IT센터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렛유인, 독취사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인턴, 신입공채),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신입공채)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신입공채)
면접	불합격 기업명	삼성전자(인턴),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제 학과에서 가장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인 공정설계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제 지식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막막한 마음이 컸습니다. 렛유인 카페를 가입하여 합격 자기소개서를 참고한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어떠한 소재가 자기소개서에 쓰일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 시작과 끝을 작성하는 팁 등을 공유받으면서 제 자기소개서가 괜찮은 자기소개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첨삭을 부탁하여 어색한 부분, 쓸데없이 늘어놓은 듯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고 좀 더 괜찮은 표현과 단어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삼성전자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학년별 한 사소한 활동들을 모두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이력서를 볼 때 어수선히 보이고 정리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신입공채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직무에서 강점이 될 만한 활동들만 골라서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인턴 때와 다르게 서류합격을 할 수 있었고 이력서에 작성한 활동들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적성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 강의를 구입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혼자 공부법을 터득하기 이전에 먼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시험과 문제가 어떠한 유형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꾸준히 문제 풀이를 하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책을 모두 사서 풀어보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인적성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아직 서류 결과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인적성 시험의 경우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키기 어렵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서류 제출 뒤, 서류 결과가 나온 뒤에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책을 풀어보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익혔고 실전에서 큰 부담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 적성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무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전공 과목의 녹화강의를 통해 지난학기에 배운 과목들을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면접에서 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깊게 공부하였고 말로 내뱉으면서 제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번 친구 앞에서 예상 질문에 대해 대답해보면서 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점, 말하는 속도, 표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갔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과정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위주로 예상 질문을 생각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이력서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준비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원(인성)면접을 준비할 때 경력개발센터 면접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처음 삼성전자 인턴을 지원하였을 때는 서류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한 분야의 직무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계 직위가 아닌 삼성전기로 지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경쟁률이 낮다고 전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직위가 아니었으며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분야였기 때문에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 동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작성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꾸며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히려 저에게 악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제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부족한 점이 보였을 것 같고 지원한 직무에 대한

진심과 흥미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쟁률 때문에 원하는 곳에 지원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채 때는 제가 원하는 삼성전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하는 역할과 그에 따라 갖고 있어야 하는 역량을 파악한 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작성하였고 또한 갖추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너무 부풀리거나 꾸미려 하기보다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겪은 경험과 배운 지식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솔직한 담아낸 것이 서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 준 것 같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경력개발센터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 멘토링,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서 제 전공 분야에 있어서 실무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배움으로써 제 전공 분야에 있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경력개발센터 면접 클리닉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는 것이라 면접 분위기, 면접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고 경험해보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분위기로 진행되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해보고 다양한 질문들을 듣고 말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저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인성 면접이 진행되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배우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여러 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 다양한 문항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돼요. 여러 소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좀 더 자신을 잘 나타내고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겠지만 동기들과 같이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돌려보는 경험도 정말 좋아요. 작성하다보면 본인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될거예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할 때 확실히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이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프로젝트, 대외활동을 참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학교 내 경력개발센터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저도 4학년이 돼서야 알게 됐어요.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조금함을 느끼는 4학년 때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취업 관련해서 클리닉 프로그램을 꼭 신청해서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아요! 본인의 부족한 점, 고치면 좋은 점들을 알 수 있고 막막했던 취업 준비에 방향성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될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다들 취업 준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1. 유형

1	■ 인턴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직무	공정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제어계측공학과	다전공 이수	x
합격시 평균학점	3.85 / 4.5점	합격시 연령	26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35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IM3
자격증	한국어문회 3급		
대외활동	반도체 공정교육, 반도체 블로그,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반도체 공정 스터디, 전자회로 실무교육, SoC 설계교육		
동아리	사진동아리, 영어학술동아리, 야구동아리, 밴두소모임		
수상경험	교내학술제 장려상		
외부교육	반도체 공정교육, 전자회로 기초실무교육, 임베디드 SoC 설계교육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렛유인, 위포트, 면접자료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인턴, 공채), sk 하이닉스, DB하이텍, ASML, lam, Amk, Kla, LG실리콘웍스, LS 전선, 대덕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인턴)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인턴)
면접	불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인턴)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복학 후에 제가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블록처럼 제조하는 반도체 산업이 눈에 들어왔고 호기심에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반도체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고, 산업분석이 된 후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와 수율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군대 - 삼성에 공고를 보고 서류 우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자3급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2학년 2학기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SML에서 주최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여 안목을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3학년 1학기 -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sns 블로그 youtube를 통해 공정과정을 독학했습니다. 여름 방학때부터 GSAT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 NCS 공정교육, 반도체 관련 소자, 공정 블로그, 공정 스터디 개설하여 반도체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학년 1학기- 삼성전자 인턴 서류 접수 후 졸업작품과 GSAT를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한권 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2개월동안 13권 정도 풀었던거 같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다보니 면접에서 활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긴장한 탓에 업무 강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블로그 활동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면접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면접준비할 때 인적성 합격 후 면접 보기 4일 전부터 매일 면접 스터디를 했지만, 현장에 의한 긴장감을 극복하기엔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나름 사람들과 얘기도 잘하고 낯도 가리지 않은 성격에 자신 있었지만,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를수도 있을걸 깨닫고 떨어진 후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현재는 면접은 손짓, 발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부터 면접스터디를 만들어 꾸준히 답변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GSAT 점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SAT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도 면접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GSAT경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현업 경험이 있는 인사담당자 분들을 초빙하여 모의면접을 진행해 면접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줬습니다. 또한, 인턴 면접을 앞뒀을 때 개별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의 담당 선생님에게 직접 모의면접을 신청하여 주기적으로 두괄식답변,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연습을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최종탈락이었지만 처음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면접이라는 채용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한 모의면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자주 개설하여 취업준비생 과 막학기 학생들에게 취업 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의면접 뿐만 아니라 대기업 인적성 시험 프로그램(HMAT, LG, 포스코 등등)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취준생의 위치를 확인하여 더욱 취업대비를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도 처음에 1,2학년 때는 경력개발센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취업준비 시기도 아니기도 했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기도 했었습니다. 3학년때부터 기전세미나 수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자리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된거 같습니다. 취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경력개발센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상담사 선생님들을 괴롭히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취업이라는 것에 절실했다면 어떻게든 선생님을 찾아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상반기 인턴 준비하면서 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신 선생님께 항상 감사함을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란 것이 생각보다 쉬운 길이 아닐겁니다. 정말 험난한 길이란걸 취준생이라는 신분으로 지낸 사람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1,2학년때부터 취업준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직무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분석을 해야합니다. 저는 취업준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낫우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분석이라는 것이 취준할 때 하게 되면 늦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페이스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선 페이스로 준비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을 무조건 쌓길 조언합니다. 공채가 줄어들고 상시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채용시장에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정성적인 역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직무 관련 정량적 역량을 키우셔야합니다. 3학년부터 품질이면 생산관리, 공정관리 관한 인턴,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취준생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작성 하다보니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보시는 학생들이라면 취업에 대한 욕심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부터 취업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다들 힘내서 꼭 각자 원하는 회사, 직무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펼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 인턴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반도체공정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및정보공학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8 / 4.5점	합격시 연령	26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790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IH
인턴경험	에너지기술연구원 (현장실습)		
대외활동	튜터링, 자전거 국토종주		
동아리	전축(축구동아리)		
수상경험	학교스포츠클럽 전국우승(13년도)		
외부교육	직무부트캠프(현직자멘토링)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렛유인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DB하이텍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면접	불합격 기업명	삼성전자(인턴), 공채 진행 중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삼성전자 인적성 합격까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전공역량이고 둘째는 꾸준한 인적성 공부입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서 합격하기 위해선 해당 직무에 관련해 전공 관련 역량의 어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모든 반도체 관련 수업을 참여하였고 항상 1등을 목표로 공부해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역량에서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무면접에서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당시 직무면접은 없었지만, 현재 공채 최종 면접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직무면접에서만큼은 전공을 통해서 준비했던 역량들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및정보공학과에서 반도체공정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전자공학1-2, 반도체제작기술, 나노전자공학, 전자회로1-2의 과목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들을 깊게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서 저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청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현직자멘토링을 신청해 추가적인 공부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강조했던 인적성 공부는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0 상반기 인턴을 목표로 했었고 2019년 겨울부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GSAT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난이도 조정이 있었지만, 인적성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꾸준하게 공부해놓지 않으면 해당 시험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인턴 최종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사실 면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긴장 풀어주는 약을 먹어서 크게 긴장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의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인성 CBT 검사에서 나름 전략적으로 저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지 생각을 많이 했고 솔직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꾸며내기 위해서 검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게 표현되는 것이 임원면접에서 치명적인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놓는 것은 맞지만 인성검사 같은 경우 솔직하게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면접을 준비할 때 빈출질문 리스트를 받았고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스크립트를 만들어 연습했는데 이런 식의 연습을 하다 보니 면접장에서도 마치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준비하기 보다는 자기소개서나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키워드 위주의 면접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해당 직무의 지원동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꼬리질문을 많이 받은 질문이었는데 내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곳에 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솔직하면서도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타당한 지원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면접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막막하고 또 스스로 연습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선배에게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면접 클리닉이나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 또한 잘 준비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든든한 지원군과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면접에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가면서 느낀 점은 그 곳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본인, 자기 자신 하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면접장에 가는 순간만큼은 정말 자신을 믿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신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응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비록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공채에서도 최종면접을 보고 왔고 이번에는 웃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취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거나 막연하게만 준비하고 계시는 후배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직면해야할 문제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학교생활 혹은 외부 활동들을 경험하시면서 하고 싶은 분야를 빠르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정하시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이로써 나아갈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 다른 스펙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잡음으로써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실 것이고 결국 뚜렷한 목표, 도전의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후회 없는 취업준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전공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사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고민하시는 후배님들! 꼭 하고자 하는 분야를 잘 정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 하셔서 원하던 사회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삼성전자	직무	메모리사업부 공정설계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 및 정보공학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71 / 4.5점	합격시 연령	만 24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70점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IH
해외경험	영국 어학연수 8개월		
자격증	Cambridge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인턴경험	ETRI 인턴, (주)인터마인즈 인턴		
대외활동	96Runners, ON-semiconductor 글로벌 멘토링		
동아리	고려대학교 호익응원단		
수상경험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장려상)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사람인, 잡코리아, 렛유인, 위포트, 각종 블로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이트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ASML, AMK,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서류	합격 기업명	삼성전자, ASML,온세미컨덕터코리아
	불합격 기업명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면접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상반기부터 인턴지원, 각종 대외활동 지원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9월 공채 공고가 뜨기 직전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문항에 맞추어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취업 스테디를 결성하여 스테디원들과 계속해서 자기소개서를 돌려 읽어보며 첨삭을 해주고 첨삭을 받으며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년별 활동 내역

1학년 :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성적은 따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선배들, 교수님과의 면담 혹은 이야기를 통해 진로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3학년 :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파악한 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영어 성적, 대내외 활동, 박람회 참가 등 진로에 대한 방향성 확립 및 전공 학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4학년 : 마지막 학점관리와 인턴, 대외활동 지원을 통한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보완하였고 서류 전형에 중점적으로 준비하며 더불어 전공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저는 인적성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부량 부족과 그에 따른 긴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에 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서류 지원 후부터 인적성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만큼 긴장감 있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류 발표 후부터 긴장감 있게 준비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량과 그에 따른 저의 자신감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미리 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금방 하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적성과 같은 요령이 필요한 시험에 적응을 잘하시는 분이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내공이 쌓이는 시험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험 당일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고 그에 따라 긴장도 많이 했던 탓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량을 늘리고 집중력과 멘탈 관리를 통해 실전에서 떨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취업동아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진행된 취업동아리를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서류전형부터 인적성, 면접 준비까지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뽑고 싶은 인재상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취업동아리 내에서

원하는 팀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여 취업 준비 기간 같은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 면접에서의 긴장감을 느껴보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까지 쌓음으로써 어떤 역량을 더 길러야 할 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소서 첨삭, 상담 신청을 통한 모의면접 진행 등 전반적인 취업 프로세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즉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좋은 기회들을 받았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후 결과에 대해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준비과정도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 발표를 통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해온 것을 보며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기보다는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서로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치기 쉬워 같이 가는 친구와 서로 격려하며 윈윈하는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최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인적성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무	일반행정직렬
-----	-------------	----	--------

3. 합격자원

전공	행정학	다전공 이수	경제학
합격시 평균학점	3.7 / 4.5점	합격시 연령	26 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715	회화점수(토스,오픽)	없음
해외경험	독일, 스위스 패시브하우스 관련해서 패시브하우스 협회 방문		
자격증	컴활 1급 필기, 운전면허 1종 보통		
인턴경험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짧게 1개월 인턴 수료		
대외활동	세종시 도시재생 센터에서 조치원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맡아 대회에서 최우수상 입상 / 대전상공회의소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서 입상하여 해외탐방 지원받음.		
수상경험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우수상, 독서PT대회 장려상 2번, 한국어멘토교육프로그램 조교 2번 참여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서류	합격 기업명	필기시험 합격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코로나로 인해 인성검사는 생략됨
면접	불합격 기업명	서울특별시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2019년 10월에 노량진으로 올라가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록한 기숙학원이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여 광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10월 말 즈음에 혼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독학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공부, 최소 2과목 공부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11월부터 5월까지 총 7개월의 시간이었으며 최대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부계획은 짜지 않았으며, 계획을 짜는 것 보단 오늘 하루에 무엇을 끝낼지, 과목 수와 대략적인 범위만 잡은 채로 그 범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아침에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는 영어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영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동시에 문제까지 오늘 진도만큼 무조건 풀고 집에 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신의 불안감과 고독함, 외로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건가?,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진정으로 나와 잘 맞을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맞서 싸워야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였는데 그때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불안해할 시간에(걱정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이 불안감을 이겨내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필기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회독입니다. 저는 기출문제집을 최소 3번씩 모든 과목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이 튀어나올 정도로 몸으로 체화를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영어 2문제에 30분을 쏟으면 나머지 80문제에는 70분이 남게 됩니다. 즉,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무조건 풀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이 튀어나올 만큼 공부해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제가 생각한 불합격의 원인은 경험부족과 정보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에 있어서 당시 저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에서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 1배수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닌 1.2배수까지 뽑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일반행정직렬을 지원하신 어떤 분이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실제 점수를 대입하여 순위를 매긴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서 저의 점수는 1.04배수로 1배수 합격인원과의 격차가 0.8점이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를 따고 실기를 따지 않았던 것, 그 흔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사무처리와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이 하나만 있었어도 합격했었습니다. 즉, 저는 가산점 준비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가 부족했었는데 서울시 일반행정직렬은 전국 모든 직렬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당시 세종, 대전, 서울에 원서접수를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서울을 지원한 것이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보력의 부족으로 기인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후 최종불합격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의 특징이 필기공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취업시장과는 길이 조금은 다릅니다. 제 면접경험은 이전에 아르바이트 면접, 공모전 발표 & 질의응답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면접 경험이 부족하였습니다. 면접시험장에서 조금 떨어던 것 즉, 면접경험의 부족이 불합격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접을 많이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준비한 것대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답변했기 때문에 면접시험에 있어서만큼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관상으로 약간은 긴장하고 떨렸던 모습이 심사위원분들에게 비춰졌을까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치렀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죽도록 노력한 시험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의 감정만 있고 후회라는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필기시험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배수 진입과 이번 면접경험을 살려 좀 더 능숙하고 잘하는 면접 자세를 기르려고 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학교에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는 동안에 진로마블 프로그램, 진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진로마블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의 성격을 글과 그림을 통해 나타내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우들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타인의 경험과 진로에 대해 소통하면서 여러 방면의 진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진로 관련 상담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원에 있는 개발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저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학점, 원하는 직종, 원하는 직무분야 등 현실적으로 내가 위치한 상황으로부터 초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당시 저의 꿈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공무원, 나의 꿈인 세무사, 가장 큰 희망사항은 공기업 취업 등으로 고민이 많던 상황이었는데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상담해주셨습니다. 학점이 3.7로 지극히 평범했고 행정학과라는 추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전공을 택한 저에게 취업시장에서의 저만의 고유한 장점을 찾기는 힘들었고 오히려 공무원의 길이 더욱 안정적이고 적합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의 상담이 제가 공무원시험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도 나름의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지만 여러 기업들에 자기소개서를 넣고, 시험을 보는 형식이 아닌 오직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사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후배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시험의 본질은 이해를 동반한 암기와 자신감입니다. 당시 저는 평균적으로 2~3년이나 걸린다는 공무원 시험을 "나는 잘하니까 한 번에 붙는다!"라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불안했고,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보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나의 길이니 열심히 해보자란 생각이 항상 앞섰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저처럼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열심히 앞을 향해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항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output과 문제해결능력, 지문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을 공부하다보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감이 안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출문제집 혹은 변형모의고사를 풀어서 자신이 당장 내일 시험을 쳤을 때,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공부의 동기도 만들어주고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후회 남지 않게 했다면, “공무원 시험을 떠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주위 친구들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나도 빨리 성공해야하는데’ 라고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다면, 내가 여태껏 들여왔던 투입비용과 시간만을 고려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만 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봤을 때에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비난을 받는 것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세종경력개발센터에 상담을 자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종캠퍼스 학우여러분 모두 취업시장에서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엠코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직무	Assembly Engineer
-----	--------------	----	-------------------

3. 합격자원

전공	신소재화학과	다전공 이수	신소재공학부
합격시 평균학점	3.6 / 4.5점	합격시 연령	25세
어학점수(토익, 토플)	토익 850	회화점수(토스, 오픽)	오픽 IH
해외경험	인도 해외봉사		
자격증	6 Sigma, ITQ, 운전면허증		
대외활동	나노구조물질 연구소 학부연구생, 신소재현장실습		
동아리	사회봉사단, RC 멘토		
외부교육	반도체 공정실습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회사 사이트, 구글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엠코테크놀로지스 코리아, DB하이텍, 삼성전자, LG화학, 헨켈코리아
서류	합격 기업명	엠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 DB하이텍, 헨켈 코리아
면접	불합격 기업명	엠코테크놀로지스 코리아, DB하이텍, 삼성전자, LG화학, 헨켈코리아
	합격 기업명	없음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대에서 주최한 반도체 공정실습을 수료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주전공인 화학을 배우며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학점관리를 했고, RC멘토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협동과 인간관계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식 함양과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소재공학부를 이중 전공하여 2년간 재료와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지식을 쌓았습니다.

반도체 기본 공정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자, 서울대에서 주최한 반도체 공정실습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통해 반도체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와 원리들을 공부해오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심있었던 후공정 파트의 엔지니어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소재 현장실습과 파이썬, 머신러닝, 엑셀과 같은 data관리 tool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르며, 업무의 효율성과 data관리 역량을 어필했습니다. 외국계기업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정보를 찾기 어려웠지만, 일단 해당 사이트의 모든 정보들을 한 파일에 정리하고, 구글링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면접과 합격자소서, 인터뷰 등을 참고하며 저와 기업의 공통점 및 입사후 포부 등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Maker Manger, 사회봉사단 등을 하며 제가 직접 기획,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감과 끈기가 있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했고,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6 Sigma자격증 취득, DSAC 교육수료, 교우멘토링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코로나로 인해 인적성 시험대신 치뤄진 AI면접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의 AI면접 경험으로 웬만한 AI game에 대한 전략을 알고 있었지만, N back이라는 게임은 잘 늘지 않았고 어플을 통해 연습했으나 꾸준히 더 연습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황면접에서 다소 당황하여 "어" 와 같은 말들을 했었고, 각 회사마다 주어지는 답변시간이 다른데 저는 1분을 약간 넘게 걸리는 답변들을 준비하여, 답변과정 시 당황하여 갑자기 말을 빨리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이 부분에서 감점 사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본적인 입사 후 포부등은 1분내에 대답하는 것으로 크게 비중을 두고 준비하지 않아서 자소서와 달리 전문성이 비교적 떨어져 담당자의 기대의 못미치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답변시간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고, 경기도 청년센터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AI game에 대한 역량을 길러 다음 기회에서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외국계 집중반'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길지 않은 수강시간이었지만,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resume, coverletter, 면접을 준비하는 가이드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 수업을 통해서 경험 정리 및 resume, coverletter를 미리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실제

지원할시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 면접’수업도 코로나 온라인 면접을 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시선 처리나 무의식중으로 내는 말 , 면접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등을 짚어주시며 이를 기반으로 보완하여 실제 면접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교우멘토링’은 현직자를 직접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자 , 취준생활에 있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회사 , 그 직무의 이슈가 무엇인지 , 현업에서 쓰는 말은 무엇인지를 어느나 모르느냐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꼈고 , 저는 총 3번의 교우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지원한 멘토님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드리며 도움을 받고 있기에 , 앞으로의 준비 생활에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

‘온오프 취업동아리’는 지금의 스타디원을 만날 수 있던 기회였고 ,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실제 담당선생님께서 대기업 엔지니어 및 인사과 출신 이셨기에 , 객관적으로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 어떤식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짚어주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또한 면접은 실제 S기업의 직무 및 인성면접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늘어질 수 있을 여름방학과 2학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스타디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 취업 준비시 필요한 정보나 스펙들을 공유할 뿐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취업준비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 ; 1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커리어에 대한 플랜을 작성할 수 있었기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이력과 스펙 , 학점 , 관심사를 고려하여 컨설턴트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또는 교육이 있으니 이수해봐라 하는 등의 제안과 컨설팅을 해주셨고 , 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원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과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취업에 대한 준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프로그램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조금이라도 빨리 경력개발센터를 찾아가라’라는 말을 가장 해주고 싶습니다 . 1학년 때 학과 선배님이 경력 개발 센터가서 이것 저것하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 저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고 , 고학년이 되어 참여하면서 진작에 왔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 자신이 아직은 저학년이라 전공 , 자격증 , 스펙적인 부분이 부족해 아는게 없을까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일단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처음부터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취업에 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여러 고학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지 ,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어떤 역량을 중요시하는지 귀동냥 또는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나가는 것 자체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뜻깊고 , 알차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 요즘은 통계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전공과는 별개로 학교 또는 외부기관에서의 통계 프로그램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일단 배우고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1. 유형

1	■ 신입공채 ■ 인턴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카카오VX / 코오롱FnC	직무	골프 아카데미 / 골프사업부 마케팅팀
-----	----------------	----	-------------------------

3. 합격자원

전공	✓ 국제스포츠학부	다전공 이수	서어서문학과 (이중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4.14 / 4.5점	합격시 연령	26 세 (1995년생)
어학점수(토익,토플)	875점 (토익)	회화점수(토스,오픽)	-
기타 외국어	중국어		
해외경험	중국 대련 3년 6개월 거주 (고등학교 중국 졸업)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GTQ, 아래 한글 등		
대외활동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OK 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UN-Habitat, RC멘토링 등		
동아리	K-Smarting(마케팅 학술 동아리), FB (For Birdie : 골프 동아리)		
수상경험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우수상,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사람인, 잡코리아, 인재 양성 시스템,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카카오VX / 코오롱FnC
서류	합격 기업명	카카오VX / 코오롱FnC
면접	불합격 기업명	카카오 VX / 코오롱FnC
	합격 기업명	-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취업을 준비하기 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수업과 대외활동을 통해 제 흥미를 찾아갔으며,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연관된 수업들과 대외활동만 진행했습니다.

수업 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교수님을 찾아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꾸준히 발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학원 등록을 하여 자기 계발에 투자했습니다. 대외활동을 할 땐, 내게 어떤 득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등을 따져가며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까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학년 때부터는 지원동기, 자기소개, 장단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등 저만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거울을 보며 웃는 모습과 첫인상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말하는 방법 등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목표설정, 체력, 우선순위 그리고 시간 분배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추진해 나아갈 체력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있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지원한 기업에 면접도 못 가고 서류에서 불합격한 원인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본적으로 지원동기, 자기소개, 장단점 등의 문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문항에 소제목을 붙이는데 질문이 바뀔 때마다 소제목에 대한 임팩트가 작아진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키피디아]라고 불리는 소통의 달인]이란 소제목을 처음에 썼지만, 이후 [웃음이 많은 리더]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앞선 소제목처럼 끌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제목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자기소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외활동 경험을 예로 들어 풀어 갈 때, "~~활동해서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라는 말은 두루뭉술하기에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얻었으면 어떤 점을 발전시켜 지원한 회사에 득이 될 것인지에 관한 서술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서류합격을 했을 땐, 면접 부분에서 역시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원하는 대답을 바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때론 한국어를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는 버릇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경험으로 흥미가 생겼고 제가 추구하는 목표와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하지만, 종종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학교생활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했고, ~~을 통해 어떤 걸 배웠고 등등 그래서 지원했습니다."라며 질문의 요점을 캐치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대답하며 요점을 흐렸던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기소개서 내용 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던 점이 불합격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세종 경력 개발 센터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사실상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통해 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제게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었고, 지원하고자 했던 회사들의 비전과 비교해보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글쓰기에 자신이 있었기에 제 자기소개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자만했었는데, 계속해서 서류에서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땐, 제 이야기와 장점 등을 잘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경력 개발 센터를 통해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과 자기를 어필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점들이 추가 또는 보완되고 삭제되어야 하는 등에 대한 조언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서 불합격 원인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재목, 구체적 서술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계속해서 수정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받으며 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원하는 기업 공고가 올라왔을 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세종 경력 개발센터 자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많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만이 아닌,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경험담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자."입니다. 취업이 힘들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단, 조금은 느려도 그 기간에 준비를 더 하고 잘 다져서 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스포츠업계 쪽을 선택하고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가 줄고 관중도 없어지면서 스포츠 시장은 이전보다 더욱더 작아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길을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부딪혀보지 못할 것 같고 지나가면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일을 사랑하고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배님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 또는 잘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만큼 후회없이 투자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좌절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존감이 바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떨어트리게 되면 남들에게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사회가, 월급이 정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하게 되면 그 바운더리에서만 놀게 될 뿐 더 높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 허리와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다 세상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1. 유형

1	■ 수시채용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코스맥스바이오	직무	제품개발
-----	---------	----	------

3. 합격자원

전공	식품생명공학과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66 / 4.5점	합격시 연령	23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730/990	회화점수(토스,오픽)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2종보통운전면허증		
인턴경험	현장실습인턴 1회		
수상경험	캡스톤디자인 우수상, 성적우수표창장 2회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코멘토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코스맥스바이오
서류	합격 기업명	코스맥스바이오
	불합격 기업명	코스맥스바이오
면접	합격 기업명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지원하고자 했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수시채용으로 희망하던 제품개발 직무의 채용이 시작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의 채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본교와 연계되어있는 코멘토에서 첨삭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 예약하고 첨삭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예약이 모두 차 있어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교생활을 바쁘게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였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1년 동안 교내 RC 프로그램 멘토로서 활동하기도 했고, 학부 연구생,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인턴 등을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다양하게 '선택'하며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매우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많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후에 있을 면접을 대비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취업 시장의 문은 좁고, 높은 스펙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스펙으로 서류는 합격이 되었지만, 면접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한 스펙을 보유했음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의 입사 조건에는 영어성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독해력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회화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 성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 불합격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점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성 면접의 경우 회사의 임원진들을 면접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실함의 척도를 학점으로 많이 평가하는 듯했고, 이 부분에서도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의 성적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감점 요인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고고익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영어성적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이에 공감합니다.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 높지 않은 학점을 다시 복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1. 지원한 회사의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경력개발센터 선생님께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선배님과의 연락에 도움을 주셔서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경력개발센터 선생님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의 면접을 여러 차례 잡아주셔서 연습할 수 있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2. 9월부터 시작했던 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자기소개서 첨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취업동아리의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면접 대비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강사님과 소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면접클리닉 활동을 통해 압박 면접을 경험해보기도 했고, 면접에 임하는 제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제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우리는 남자를 원해요”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고, 시작부터 면접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저희 과 학우들이 많이 지원하는 직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에 여성분들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번쯤은 직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면접관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전달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면접장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다대다 면접의 경우엔 옆자리에 어떤 지원자가 앉아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면접관이 원할 것이고, 그 또한 평가될 수 있음을 면접 후에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든 면접관이 예의 있는 태도로 지원자를 대면할 것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버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배님들로부터 가고 싶은 기업 면접에 가기 전에, 원치 않는 작은 기업이라도 지원해보고 면접을 경험해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겪어보니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경험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이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유형

1	■ 인턴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직무	여신심사 보조
-----	----------	----	---------

3. 합격자원

전공	북한학과	다전공 이수	
합격시 평균학점	3.8 / 4.5점	합격시 연령	만 23세
어학점수(토익,토플)	토익 880	회화점수(토스,오픽)	Toeic-s Lv7
기타 외국어	JLPT N3		
자격증	무역영어 1급, 전산세무2급, 한경테셋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동아리	서화회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독취사, 자소설닷컴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류	합격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인적성시험	합격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면접	불합격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2020년 하반기 신입공채)
	합격 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2019년 하반기 인턴)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구체적 계획의 수립)

군대에서 전역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북한학과를 재학하며 상경계열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었고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정치적 협력은 어렵더라도 경제적 협력을 꿈꾸며 그에 대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물류와 유통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 군대에서 무역영어1급을 취득 후, 제대하여 기본적으로 다수가 준비하는 토익과 토익 스피킹 취득 하였으며 교내 각종 취업관련 수업과 취업 카페를 활용하며 지원해볼 수 있는 회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3학년부터 무작정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 많았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 후, 저는 미래에 작성하고 싶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으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적으면 합격할 것 같은지 미래의 준비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이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3학년 2학기에 인턴 공고 중 평소 관심이 있었던 무역과 관련된 회사를 알게 되었고, 다른 합격 자기소개서와 때마침 듣고 있던 취업관련 수업을 통해 1분 PR 준비 등을 통해 인턴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인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검색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 사이트를 조금만 확인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Dart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읽고 좀 더 수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관련 최신 뉴스를 5개년치정도 정리하여 면접을 대비하였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생각하는 것과 일단 행동하는 것의 격차)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행동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실행에 앞서 좀 더 준비하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행동해보는 것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실제 북한과 무역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기에 전공과 관련성이 적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고민할 시간에 일단 취득한 후 연관점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였고 허투루 보낼 수도 있는 군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도 써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에 걱정되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작성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격차는 그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야 고민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하는 시기에는 1주일에 3개 이상도 작성하며 간결성, 연관성을 중점으로 작성요령을 키울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은 후에 다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금융 공기업을 다니며 비상경계열로서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서울시 뉴딜정책으로 운영되는 경영지원 양성과제에 참여해 회계와 세무의 역량을 넓히고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며 조금씩 역량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실행하고 경험해보면 더 좋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하면서 세종경력개발센터만큼 노력하는 취업 지원센터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무관심을 보여도 끝까지 도와주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을 향한 진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프로그램 중 좋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산학연계현장실습 지원입니다. 학생으로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경험해보기 어렵지만 현장실습을 위해 직접 자소서를 써보고 센터에서 면접을 보는 경험은 학생의 취업준비의 시작을 보조해주는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로상담입니다. 취업한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다를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자이 아닌 구체적 전문가의 입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진로와 관련해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기 힘든 일까지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 현실적인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역시 취업을 대비하는 입장의 큰 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여러 자격증 지원입니다. 메시지로도 여러 가지 자격증 대비 정보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자격증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그와 연관되어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을 취득할 수 있었고, 기본적 스펙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기본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취업 준비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출했던 자기소개서가 떨어질수록, 주변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올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 문제를 코로나로 인한 취업 일자리 수 감소, 혹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준비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아끼는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글과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순환점을 갖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이 아닌 발전 가능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님 저자의 '회복탄력성'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합격연락을 받을 때 자주 읽었던 도서입니다. 책의 내용 중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수행할 때 그 결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가 고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자신을 토닥여주며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유형

1	■ 인턴
2	■ 최종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직무	경영기획 및 사업보조
-----	-----------	----	-------------

3. 합격자원

전공	영어영문학과	다전공 이수	인문학과 문화산업 융합전공
합격시 평균학점	3.6 / 4.5점	합격시 연령	23세
어학점수(토익,토플)	-	회화점수(토스,오픽)	오픽 IH
동아리	학교 소모임 부회장		
수상경험	성적 우수상 1회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자소설닷컴, 사람인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현대트랜시스, 넥슨네트웍스, 성남시청, 카카오브이엑스
서류	합격 기업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남시청 행정인턴
면접	불합격 기업명	현대트랜시스, 넥슨네트웍스, 카카오브이엑스
	합격 기업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남시청 행정인턴

5. 합격과정

(취업전략, 학년별 활동내용, 정보검색-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등 단계별 준비내용, 면접질문 등)

고학년이 되고, 취업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대외활동, 봉사활동, 높은 어학 점수 등 좋은 스펙을 많이 쌓고 있던 터라 저도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몇 달간 채용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네임 밸류보다는 제가 원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인턴을 뽑는 곳을 찾았습니다.

자소설 닷컴이라는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외활동이나, 인턴 경험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점을 4점대로 올린 사례, 소모임에서 했던 경험 등 학교에서 경험했던 일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합격 4일 후에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무만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합격 후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독하고 암기하여 면접을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으로는 융합 전공에 관하여 여쭙보셨습니다. 융합 전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고려대학교에만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간단한 회사에 대한 정보(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은가),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가,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등의 인성 면접 위주였습니다.

6. 내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남과 차별화된 내용,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합격 원인은 회사의 니즈를 잘 파악한 지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이나 협회 등의 대학생 체험형 인턴은 지원자에게 많은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무의 경력직이 아닌 이상 업무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성을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스펙에 자신이 없으시다면(저처럼) 회사의 네임 벨류보다는 원하는 직무 중심으로 인턴에 지원하시는 것이 합격하기 비교적 쉽고, 실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인근 거주자임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채용 사이트를 보며 우대사항 란의 '인근 거주자 우대'를 보고 회사의 A 본원과 불과 15분 거리라고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전 A 본원 경영기획팀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B 본원의 인근 거주자였고, B 본원에 지원팀에 합격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대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저는 중학생 때부터 꿈꿨던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란 직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오로지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어학 점수만 높이며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여러 방면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문계열에서 할 수 있는 경영 지원, 사업 기획 등의 직무를 중심으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상담받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사하려던 항공업계는 현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채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취업 시장에서 경영기획, 인사 등의 직무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하며 느끼고 얻은 점이 많습니다. 사소한 이메일 작성법부터 클라이언트 응대, 행사 개최 등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취업 시장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리는 것도 좋지만, 플랜 B도 생각해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세종경력개발센터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저는 '성공취업전략'이란 교양 수업을 듣고 4학년이 되어서야 경력개발센터에서 첫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시간이 많은 저학년 때 sportal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봉사활동을 한 번이라도 가보지 않았는지,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만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는 게임하면서 노느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경력개발센터와 sportal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의 진로를 여러 방향으로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저처럼 중학생 때부터 꿈꿨던 직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깐요.

저보다 연장자인 분들께 취업 상담을 하면, 생각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취업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명 운도 따라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탈락한다고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번엔 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취업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원하는 곳으로 취업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유형

1	■ 신입공채
2	■ 중간합격-서류전형까지 합격

2. 합격정보

기업명	휴맥스 오토모티브	직무	HW sound tuning
-----	-----------	----	-----------------

3. 합격자원

전공	전자기계융합공학과	다전공 이수	X
합격시 평균학점	3.11 / 4.5점	합격시 연령	28세
어학점수(토익,토플)	X	회화점수(토스,오픽)	IM2
자격증	워드프로세서1급, 1종대형		
동아리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축구 소모임		
수상경험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		
외부교육	IDEC		
취업준비에 활용한 사이트/자료	youtube, saramin, jabplanet		

4. 지원현황

현재까지 총 지원 기업명		삼성전자, SK실트론, 콘티넨탈오토메이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한국기가포톤, 두원전자, LS Electric, 휴맥스, 보쉬
서류 면접	합격 기업명	휴맥스, 보쉬
	불합격 기업명	휴맥스, 보쉬
	합격 기업명	-

5. 합격과정 (준비전략, 준비내용, 합격 단계까지의 기출 내용, 학년별 활동내역 등)

저는 3학년 2학기 보쉬 및 콘티넨탈에 인턴을 준비하면서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원하는 3가지 직무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 가서 직무 소개 및 뉴스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만든 후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틀이 잘 잡혀야 여러 회사 지원 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3학년 2학기에는 콘티넨탈은 최종합격하고, 보쉬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콘티넨탈은 합격했어도 휴학하기 애매한 시점이고 곧바로 졸업하기에 매우 걸리는 부분이 많았기에 포기했습니다. 좋은 경험인 만큼 이를 살려 4학년 1학기에는 직무에 필요한 전공수업을 보다 듣고 수상경력까지 쌓았으며, 현재는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가능한 모든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부터 면접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전공과목 및 학교에서 하는 면접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후 스터디와 주변 동기들과 함께 면접경험을 한 번씩 쌓은 후 실전에서도 적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면접에서는 주로 불합격을 받았지만 좋은 소식은 들릴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6. 내가 생각하는 불합격 원인 (다음 단계의 불합격 이유, 자기분석, 보완계획 등)

항상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착잡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서류,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을 경험하면 항상 다시 서류를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회상하며 정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원인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긴장입니다. 면접전형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내용 및 전공지식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서 지원하여 면접경험을 쌓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스터디를 통해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평균학점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저의 학점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0을 넘으면 된다고 하지만 다른 지원자는 4.0에 육박하는 학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합격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에서 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해서 수료하고 있으며 저만의 강점을 키우고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7. 세종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받은 내용, 좋았던 프로그램

경력개발센터는 취업준비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당 선생님에게 상담받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부족하고 보충해야 하는 부분 등 전반적으로 한 학생의 전체적인 개발을 쌓기 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매달 한 번 이상을 꼭 상담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맞는 직무 및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준비 시 하나의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타회사 지원이 유리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당장 다음날에 면접이 진행되는 날이 있었는데 바쁘신 대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을 통해 모의면접을 진행해주셔서 면접전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교우 멘토링입니다. 재직 중인 선배에게 듣는 실제 회사 이야기, 직무에 관한 이야기, 취업 준비를 했던 전략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솔직하게 부족한 점, 보충해야 되는 점을 지적해주시고 자기소개서를 첨삭도 해주시며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8.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난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에 학년에 맞는 전공공부를 하면서 여러 특강, 선배를 통한 직무특강, 나에게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취업준비 시 도움임 될 것입니다. 직무만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전공을 잘 쌓아놓는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매우 편할 것이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무를 선택했다면 유튜브나 경력개발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및 내 강점을 찾아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말이 이상해도 쓰고 첨삭도 받아보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하다 보면 4학년 취업예정일 때 남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더 많은 회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충고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좋고 나쁜 결과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에 좌절하지 말고 항상 나아가는 후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